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 당 중 앙 원 회 기 관 지 동

제72호 [루계 제24485호] 주제103(2014) 년 3월 13일(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주 체 혁 명 따 라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우리 공화국정권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나가자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드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최고인민회의 제 1 3기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 고 새로운 주체 1 0 0년대의 진군길 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기어이 혁명 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대정치축전이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고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 거를 위한 제 1 0 5호구 제 4 3호분구 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 회의 제 1 3 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가 보도한바와 같이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 97%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선 거에 참가한 선거자의 100%가 대 의원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정 권에 대한 전체 군대와 인민의 절대 적인 지지와 신뢰심의 분출이며 인 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려는 드 팀없는 의지의 과시로 된다.

선거결과에 대한 소식은 지금 온 나 라를 크나큰 격정과 기쁨으로 설레이 게 하고있으며 전체 선거자들의 가슴 마다에 위대한 사회주의조국, 존엄높 은 우리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 부심을 더욱더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 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 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제 1 3기 대의원선 거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 행과 강성국가건설사에 특기할 정치 적사변이였다.

선거를 통하여 공화국의 최고주권 기관이 인민군군인들과 로동자, 농 민, 지식인, 일군들을 비롯하여 당파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진정한 인 민의 대표들로 꾸려짐으로써 우리 인민정권이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정치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더 욱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 다. 새로운 주체 1 0 0 년대에도 우 리 공화국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 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 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혁 명적본태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 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 였다는데 이번 선거가 가지는 력사 적의의가 있다. 이것으로 하여 이번 선거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 하고 그 앞길에 보다 밝은 전망을 열 어놓은 획기적인 전환의 리정표로 되였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 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 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 은 신념이 세차게 분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조국 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것이 천만군민 이 실생활체험속에서 간직한 억척불 변의 신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백두령장의 힘찬 발걸음따라 질풍같 이 내달리는 새로운 주체 1 0 0년대 의 진군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더 심장깊이 절감 하고있다. 오각별 찬란히 빛나는 람 화국뿐이다.

홍색기폭에 승리만을 아로새기며 세 기적인 기적과 미증유의 대변혁을 창조하여온 우리 공화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서 일대 앙양기를 열어나가 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 인 선군령도에 의하여 백두에서 개 척된 주체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 어지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 회주의가 불패의 보루로 다져지고있 으며 우리 조국이 정치사상강국, 군 사강국으로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고 있다. 오늘과 같이 공화국의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있 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번에 제 1 1 1호 백두산선거구 의 군인선거자들이 온 나라 전체 인 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 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 가려는 확고부동한 신념의 발현으 로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세상에서 가 장 우월한 우리 공화국정권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 이 뚜렷이 과시되였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인민대중을 위 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 다. 창건된 첫날부터 인민존중, 인민 중시를 근본리념으로 내세우고 전체 인민을 차별없이 따뜻이 품어주고 보 살펴준 삶의 보금자리였기에 공화국 정권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 지와 신뢰는 언제나 절대적이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민 이 있지만 국가와 인민이 운명도 미 래도 함께 해나가는 나라는 우리 공

조국은 강성번영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쳐가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공 화국의 품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 인으로서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오늘에나 변함없이 실시되는 인민 적시책에 의하여 누구나 평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고있다. 그 어 면 천지풍파가 닥쳐오고 천만시련 이 겹쌓인다고 하여도 세상에서 가 장 우월한 우리의 인민정권과 사회 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해나가려는 천만군민의 혁명적의지는 확고부동

우리 인민이 이번에 진행된 최고 인민회의 제 1 3기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찬성의 한표 를 바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을 불패 의 강국으로, 후손만대의 삶의 터전 으로 빛내여나가려는 한결같은 열 망과 뜨거운 애국심의 폭발이다. 천 만군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 뢰하는 우리 공화국정권은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공화국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 민들은 오늘의 앙양된 분위기를 계 속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존엄과 필 승의 기상을 더 높이 떨치기 위한 총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로선을 인민정권건설의 지침으로 튼 튼히 틀어쥐고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실천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 과 업적을 빛내이고 선군의 위력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로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나라, 온 세계가 우러르는 천하제일 강국을 일뗘세우기 위한것으로 일 판되여있다.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어제나 는 길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륭성번 영이 있다.

> 우리 인민정권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해나가 는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정치적무 기이다.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인민정권건설과 활동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위력 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정력적 인 선군령도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위업을 승리 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 호고수하고 정권건설과 국가사회생 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 가야 한다.

>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 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을 지니고 원수님 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용 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전당과 온 사회에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정권건설과 활동 을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 켜나가야 한다. 천만군민이 그 어떤 시 련이 닥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 과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참된 혁명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여 야 하다.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천백 배로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식 사 회주의를 불패의 보루로 다지기 위 한 결정적담보이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 확고부동

우리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두고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 우리 식 사회 주의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 적으로 책동하고있다. 현실은 우리 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최대의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 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추 켜들고 공화국의 최강의 무기인 일 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 다. 수령결사용위정신에 기초한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적 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단호히 짓 부셔버려야 한다.

무적의 군력은 선군조선의 자랑이 며 우리 공화국의 제일국력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선군혁명의 주력군, 공화국의 믿음직한 수호자로 서의 사명을 깊이 새기고 혁명적경 각성을 최대로 높이며 전투정치훈련 을 강화하여 그 어떤 불의의 정황에 도 단호히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누구 나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본분을 자각 하고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판철하여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 새로 전변시키며 전민이 무장한 무 적필승의 군사강국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 며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 야 한다.

오늘의 총진군은 우리 공화국을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빛내이 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모든 당 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사상, 우리 힘, 우리 식이 제일이라는 관점, 원대 한 리상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은 그 무엇으

한 신념을 지니고 분발하고 또 분발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군 대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 과 일본새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무슨 일이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먼 후날에도 손색없이 해 놓는 인민군대의 열렬한 애국심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인민군군인들 처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 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 치는 애로와 난판을 자체의 힘으로 완강히 뚫고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 의 공화국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 지와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투철 한 신념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창조 하는가를 온 세상에 톡톡히 보여주 어야 한다.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사회에 대한 통 일적지도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 의 복무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에서 전체 인민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우리 당 의 인민적시책들이 더 잘 구현되도 록 하여야 한다. 모든 정권기관 일군 들은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헌 신적으로 일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끝없 이 휘황찬란한 미래가 펼쳐져있다. 위대한 당의 세련된 령도와 천만군 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기에 우 리 공화국정권은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정권의 강 화발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 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야 할 혁명의 지 휘성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함경북도송배전부 부지배인 김금석은 10여년간 618건설돌격대 대대 장으로 일하면서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 주었다.

돌격대에 탄원한 대성지도국 부원 고성남, 로동 신문사 기자 손소연, 평양시무역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강경호, 평천구역건물관리소 로동자 변인섭, 만경대식료기계부속품공장 로동자 허은경, 신의주시 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 로동자 장미향은 전투장에 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 적극 참 가하였다.

류경원 로동자 류송희는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본분 을 다하면서도 여러차례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장 을 찾아가 돌격대원들에게 지원품을 안겨주고 선동사 업도 벌려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많이 하여온 남 포시 강서구역상업관리소 로동자 민명화는 당의 대자 연개조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 고있는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는 심정으로 물심량면

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운하대성식료공장 로동자 리성희도 고산땅의 전변 을 안아오는데 기여하는것을 공민의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 날마다 혁신적성과를 창조하고있는 건설자들 에게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중앙은행 평안남도 맹산지점 지배인 문학규는 순결 한 량심을 지니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도 과 !! 일생산기지건설지원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대중의 존 경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 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보탬을 주는 일을 더 많이 할 혁명적열정으로 가슴 불 태우고있다.

본사기자

주체위업의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축하문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전체 선거자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한없이 끓어번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신뢰심 의 표시이며 원수님을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모시고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선군조선의 혁명적기상과 불굴의 의지의 분출 입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계 일어나고있는 장엄한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이 빛나게 실현된 민족사적대경사이며 조국인민과 더불어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간절한 열망이 실현된 격동적인 사변입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강철의 신념과 비범한 령도예술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조선을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 로 곧바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재일동포들의 다함 없는 충정과 흠모의 정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 를 드립니다.

어버이장군님을 너무나도 뜻밖에 잃고 몸부림치던 통탄의 나날 신념의 억센 기둥이 되시여 조국인민들과 함께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반미전면대결전의 그처럼 준엄한 속에서도 백두산위인들의 국가건설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우리 조국을 인민들이 사회주의부 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행복의 락원으로 빛내여주시는분이 바로 백두의 천출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굳건히 이어가시 는 나날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화국의 유일무이한 지도적지침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하도록 하시였으며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가장 숭엄하고 훌륭하게 꾸리도록 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옥같은 충정과 고결한 도덕의리에 의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끝없이 흐르고 우리 조국은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상으로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으로 동방일각에 거연히 일떠 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철석같은 신념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조국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으로 령도자와 한피 줄을 잇고 사는 사회주의대가정의 행복을 활짝 꽃피우시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일대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 고계십니다.

창조와 건설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 본사기자 끊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의열풍을 일으키시고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시여 조국땅 방방곡곡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솟아오르는 눈부신 현실을 펼쳐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의지와 탁월한 령도에 의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새로운 활로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불면불휴의 현지지도길을 이어가시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친어버이은정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였

총련지부일군대회에 친히 력사적인 축전을 보내주시고 공화국창건 65 돐에 즈음한 축하문으로 더없는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의 새해축전에서 총련 제23차 전체대회가 있게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숭고한 믿음과 사랑을 애국의 열정으로 불태우라고 하시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에로의 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애족애국운동에로 우리들을 힘있 게 고무추동해주시였습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시면 서 조국땅우에 10년을 1년으로 비약하는 거창한 변혁의 시대를 안아 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령도와 원수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은총을 새기면서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충정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 길에 주체위업의 최후 승리가 있고 재일동포들의 행복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 직하고있습니다.

총련의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어버이장군님의 강령적 유훈을 판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총련조직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 어떤 정세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원수님만을 충정으로 받들어모시고 🛚 애족애국하는 원수님의 영원한 해외전우, 해외동지로 살며 투쟁할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고 총련을 조직사상적 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고 일심단결을 강화하며 조국의 강성국가건설 과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총련의 애족애국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나가겠습 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가지는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충정의 대회, 일심단결의 대회, 계승과 혁신의 대회로 빛나게 장식하며 김정은시대 새로운 전성기 에로의 비약의 토대로 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을 높은 단계에로 혁신시 켜나가겠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은 온 겨레와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 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3(2014)년 3월 10일 일본 도꾜

정은동 동 혘 식 댐 라 에 보 도 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3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 였다.

중국보도사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 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 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훈련에 참 가한 비행사들이 모두 녀성들인데 불리한 기상조건속에서도 전투동 작들을 훌륭히 수행한다고 치하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비행사들에 대 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비행 훈련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비행훈련지도를 마치신 다음 군부대를 시찰하시면 서 《녀성비행사의 노래》를 창작하 여 부를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 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이날 부부 비행사들을 만나시였다.

부부비행사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면서 가사 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는 이 들의 마음은 정말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

을 찍으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네트홈페지 동북망,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신화망,중국망,신랑망,동북 망, 이란신문 《이란 뉴스》, 나이 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네팔신 문《아르판》은 조선로동당 제8 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데 대하

여 전하였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들파 네팔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래

에 짚 트 전 국 준 비 위 원 회 태양절경축 에짚트전국준비위원 자카리야 헤이룰라가 선출되였다. 회가 3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에짚트자

준비위원회는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수령 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야흐야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

결 성 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 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영원히 빛내여갈 우리 혁명의 0104 만년재보

득 맥 명 적 지 아

천리혜안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이 땅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온 세상에 소리쳐 전하는 안주지구 비밀근거 지에 대한 우리의 취재길은 전산과 특맥산혁명전적지들에로 이어 졌다.

마두산혁명전적지에서와 같이 바 로 여기서도 우리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들수도 없는 우리 혁 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문헌들이 어 떻게 마련되였으며 그것이 우리 군 대와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주 는 력사의 철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 는것을 다시금 뜨겁게 체험할수 있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은 곧 신념입니다. 신념을 버리면 혁명을 할수 없습니다. 혁 명적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 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할수 있습니다.》

전산혁명전적지는 마두산혁명전적 지에서 30리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 하고있었다.

전산혁명전적지입구에서 만난 이 굣 강사는 곧장 우리를 답사로정으 로 안내하였다.

가랑잎이 수북이 쌓여있는 오솔길 을 따라걸으며 우리는 저도모르게 여 기 산촌에서만 느낄수 있는 류다른 감흥에 휩싸였다.

키높이 자란 아름드리나무들, 이따 금씩 산골의 고요한 정적을 깨치며 청신한 공기… 내 조국강산 그 어디에 가보아도 느낄수 있듯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 진 그 모든 풍경은 마치도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안겨들었다.

하지만 혁명선렬들의 넋이 깃든 혁 명전적지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 찌 산촌의 아름다움만을 꼽을수 있 겠는가.

우리의 머리속에는 불현듯 해방후 혁명시인 조기천이 쓴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버이라-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옆에 놓인 돌 차지 말라-

우리 선렬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이 나라의 한 시인이 격조높이 토 로하였듯이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온 항일선렬들의 자욱자욱들이 이 땅 방방곡곡에 그 얼마나 무수히 새겨 져있던가.

바로 여기 전산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항일혁명선렬들의 자취가 뜨겁게 새 겨져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은 저도모르게 숭엄해졌다.

우리들의 속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강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 었다.

《전산혁명전적지는 마두사혁명

전적지와 같이 지난 항일무장투쟁시 기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봉기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작전적구상에 따라 꾸려진 비밀근거지들중의 하나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3 4 (1 9 4 5)년 6월 백두산 지구 비밀근거지의 간백산밀영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 을 발표하시면서 국내에 진출할 조 선인민혁명군 각 부대들의 전투임무 를 확정해주시였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 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인솔하시고 평안도일대에로 진출하려고 계획하 시였는데 그 지역이 바로 여기 안주 지구 비밀근거지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백두장수 장도짚고 삼천리 굽어본 다》라는 글발이 씌여진 그리 크지 않 은 바위앞에 이르렀다.

강사는 우리들에게 구호문헌을 읽 어주면서 이것은 지난 항일무장투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백두장수로 높이 칭송하며 그이의 령도에 무한 히 충실하였던 투사들의 불굴의 혁 명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불멸의 글 발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구호문헌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가슴은 마냥 뜨 거워졌다.

사령관동지만 계시면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지 니고 그이의 두리에 철옹성같이 굳 게 뭉치여 항일의 혈전만리를 억세

게 헤쳐온 열혈투사들, 돌이켜보면 항일무장투쟁사의 갈 피갈피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이를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친 수령결사용위의 전위투사들의 모습이 그 얼마나 무수히 새겨져있 더가.

언제 어디서나 사령관동지의 안녕 부터 먼저 생각하고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한 오 중흡동지, 혁명의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 자기의 혀를 끊으면서도 혁명 적절개를 끝까지 지킨 마동희동지…

김일성장군님은 조선의 운명 이고 미래이시며 그이를 따르는 길 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이다!

그 무엇에도 드놀지 않는 이 철의 신념이 투사들의 심장마다에 굳게 간직되여있었기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백두장수로 그토록 높이 칭송하며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청 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울수 있 은것이다.

구호문헌의 글발을 새겨볼수록 단 두대에 올라서면서도 사령관동지의 안녕만을 간절히 바라며 뜨거운 눈 물을 흘리던 열혈투사들의 모습이 눈 앞에 선히 어려와 격정을 금할수 없

이어 우리는 《회합장소》라고 쓴 안 내판이 서있는 비교적 지형이 펑퍼 짐한 곳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전민항일에 단결하라》 라고 쓴 구호문헌안내판과 함께 불 무지자리, 커다란 천연바위에 쓴 구 호문헌이 소중히 보존되여있었다.

바로 여기에서 주체 3 4 (1 9 4 5) 년 6월 1 5일 조선인민혁명 군 소부대책임자의 지도밑에 국내

회합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백산밀영에서 제시하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각 지방대표 들의 과업과 함께 최후공격작전시 기 혁명의 사령부가 이 일대에 진출 하게 되면 사령부의 안전을 목숨으 로 보장할데 대한 중요한 문제가 토

여러 대표들의 회합이 진행되였다.

전산에서 발굴된 《회합소》, 《회집 6.15》라고 쓴 구호문헌들 은 그날의 회합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있다.

의되였다.

이날 회합에 참가하였던 대표들 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해 방을 위한 력사적인 최후공격작전 에 참가하게 된 한없는 긍지와 기쁨 을 안고 이곳에 있는 천연바위에 《금비건립문 민심 천심 김대장 천만 년 받들자》라는 불멸의 글발을 남기 였다. 금비건립문이란 문자그대로 금으로 비를 세워 새겨야 할 글이라 는 뜻이다.

그날 회합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 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천연바위에 이런 뜻깊은 글발 을 새겨넣었던것이다.

구호문헌에 깃든 사연을 새겨보며 답사로정을 이어가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당시 투사들에게 구호문헌을 남기 라고 시킨 사람은 없었다. 또 그들중 에는 학교를 나온 사람도 별로 없 었다.

하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투사들 로 하여금 그렇듯 주옥같은 불멸의 글발들을 천연바위와 나무들에 새겨 넣게 하였는가.

바로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 그이의 령도에 일편단심 충정을 다하려는 투사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이 그대로 시어가 되고 글발이 되여 이 땅에 뚜 렷이 새겨지게 된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전산혁명전적지에 보존 되여있는 《어둡던 천상에 광명성 비치니 아침밝아온다》, 《독립령수 김대장 한마음으로 받들자》등 여 러 구호문헌들을 돌아보면서 항일혁 명투사들이 지니였던 수령결사용위 정신이 얼마나 투철하고 열렬한것인 가를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이어 우리는 특맥산혁명전적지에 로 향하였다.

특맥산은 전산에서 20리가량 떨 어진 곳에 위치하고있었다. 특맥산밀영은 지난 항일무장투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에 따라 이곳에 파견된 소부대성원들이 안주지구 비밀근거지에로 들어가기 위한 련락지점으로 꾸린 밀영이였 다. 우리는 이곳에 보존되여있는 혁 명유적들을 돌아보았다.

이곳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숙영지자리며 샘물터자리, 구호문 헌안내판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항 일무장투쟁시기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 기 위해 안주지구에 지역적령도거 점을 꾸리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 의 작전적구상이 얼마나 비범한것 인가를 더욱 깊이 절감하게 하 였다.

안주지구 비밀근거지를 돌아보면 볼수록 우리의 가슴마다에는 혁명전 적지, 사적지들마다에 소중히 보존 되여있는 구호문헌들과 혁명유적

유물들에 체현된 항일의 혁명전통이 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여주고 조선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주는 귀중한 만년재보라는 철의 진리가 더욱 뜨겁게 새겨졌다.

이러한 혁명적재보를 가지고있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우리 인민만이 지닌 크나큰 영광이고 행복이며 자랑이라는 생각으로 하여 우리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올랐다.

그렇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며 우리 투 사들이 남긴 그 모든 고귀한 혁명적 재부들은 오늘도 이 나라 천만군민 의 심장마다에 혁명의 령도자를 받드는 충정의 마음은 한점의 티도 없이 가장 맑고 깨끗해야 하며 그 신 념을 지니고 싸워나갈 때 보다 큰 승 리와 영광을 이룩할수 있다는 철의 진리를 굳게 새겨주고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 은 항일선렬들이 물려준 혁명의 만 년재보를 위해서라면 뜨거운 화염속 에도 서슴없이 뛰여들고 그것을 더 욱 빛내여나가기 위해 자기들의 성 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 이다.

이곳에 대한 취재를 마치고 떠나는 우리들의 가슴속에서는 이 런 심장의 웨침이 세차게 울려나 왔다.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굳건히 담보해주는 혁명의 만년재보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그 업적을 길이 전하며 온 세상에 더욱 더 찬연히 빛을 뿌리라.

글 본사기자 정 순 학 사진 본사기자 김종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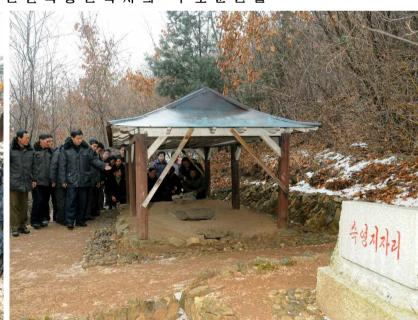




백 두 산 위 인 들 을 신 념 으 로 받 들 어 모 신 항 일 혁 명 투 사 들 의 숭 고 한 정 신 길 이 전 하 는 전 산 혁 명 전 적 지 의 구 호 문 헌 들







찾 아 구 호 분 헌 들 을 십 장 깊 이 새 겨 가 는

특 맥 산 혁 명 전 적 지 의 숙 영 지 자 리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일심단결이자 강한 혁명적규률이□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당과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수령의 사상과 뜻으로 굳게 뭉친 사상적전일체로,당의 유일적 령도밑에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행동의 통일체로서의 위력을 힘있 게 떨치자면 강한 혁명적규률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혁명적규률은 사회정치적집단의 가장 공고한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초석이다. 물론 사회정치적집 단의 매 성원들의 사상적준비정도 와 수양정도는 하나와 같지 않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저마 끔 제 생각을 앞세우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집단자체가 유지될수 없고 자기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일찌기 제도와 질서가 없고 규 률이 없는 컴컴한 곳에서는 반드시 《도깨비》가 장난하는 법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개인의 운명과 집단 의 운명,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 익이 하나로 통일되여있는 사회정 치적집단에서 혁명적규률이자 곧 단결이다.

우리의 혁명적규률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통 일단결을 천백배로 다지고 혁명투 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 령도를 백방으로 보장하기 위한 강철같은 규률이다.

지난 세기에 일부 사회주의나라 들에서 대두한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당안에 중앙집권적규률을 세우지 않 음으로써 당을 조직적으로 약화시켰 다. 로동계급의 당의 사상적전일성 을 부인하고 사상의 《자유》를 허용 함으로써 당안에서 분파활동을 조장 시키고 당과 인민을 사상적으로 와 해변질시켰다. 결국 사회주의를 건 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당의 조직 사상적기초가 허물어지고 우연분 자, 정치적사기군들에 의하여 당이 롱락당하게 되였으며 외부세력이 당

안에 반대파세력을 부식시켜 당의

지도부를 뒤집어엎는 사태가 벌어지 게 되였다.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위하지 못하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없다. 현대수정주 의자들이 《개인미신》을 없앤다는 구실밑에 사회주의위업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 수령을 공격해 나선것은 바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파괴하자는것이였다.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교훈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강철 같은 규률을 세우지 못하면 통일단 결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적규률을 강화해나갈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고 온 사회에 일심단결의 대풍모가 더욱 활짝 꽃펴나게 된다는것은 우리의 사회 주의건설력사가 보여주는 귀중한 경험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혁명 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 을 제때에 정확히 당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혁명적규률 과 질서, 당에서 일단 결론한 문제 에 대해서는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즉시에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이 원칙적립장을 굳건히 고 수해나가고있는것이 우리 혁명대오 의 전투적면모이며 그 과정에 백배 천배로 다져지는것이 우리의 일심

단결이다. 조선로동당 제 8차 사상일군대회 이후 힘있게 벌어지는 사상전의 불 도가니속에서 우리의 혁명적규률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일심단결이자 강한 혁명적규 률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을 영원한 좌우명으로 틀어 쥐고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김 성

수 도 에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

선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자자구구 새길수록 우리 식 건축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고 수도 평양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으 로 일떠세우시기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경 애 하 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건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 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 머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 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

자애로운 모습이 숭엄히 안겨온다.

이십니다. » 주체68(1979)년 11월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시에 새로 건설하게 될 거리형성모형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일군들을 부르시

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

였다. 언제나와 같이 정열에 넘치신 모습으로 일군들을 반겨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커다란 기대가 담기신 표정으로 새 거리형성모형을 보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아쉬우신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탄부들이 회상기학습을 통 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백절 불굴의 혁명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 우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탄부 들속에서 회상기학습이 가지는 의의 와 중요성을 깊이있게 해설해주고

듯 륜환선거리에 새로 지을 살림집 들의 층수가 아직도 전반적으로 낮 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시 일군들이 만들어올린 형성모 형으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다시 만든것이 였다.

얼마전 형성모형을 보아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륜환선거리형 성을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하자고 하시면서 새로 짓는 살림집들을 통이 작고 호리호리하게 높이 짓되 드문드문 배치하는것이 좋겠다고, 그러면 거리도 새롭게 될것이고 천리마거리, 승리거리와도 층층으 로, 사이사이로 겹치면서 한덩어리 로 잘 조화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

던것이다. 새로운 우리 식 거리형성방법과 건 물모양을 창조할데 대한 그이의 의도에 제대로 따라서지 못하고 아 직도 낡은 틀에 매달려있은 자신들 이 돌이켜져 일군들은 아무 말씀도 올릴수가 없었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번에 륜환선거리를 고층건물들 이 우뚝우뚝 솟은 웅장하고 현대적

학습을 통해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

던 혁명적신념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

획에 따라 어느 한 막장에서 항일

얼마전 초급당위원회의 학습계

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기

학 습

을

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혁명의 혁명적신념을 지니고 막아서는 난판

모임이 진행되였다.

인 거리로 형성하자면 살림집들의 층 수를 더 높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금강산절경을 방불케 해야 합니

금강산절경! 얼마나 새로운 우리 식 거리의 전 경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주시는 가르치심인가.

격정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바라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형사 판으로 다가가시였다. 그러시고는 손수 건물모형들을 하나하나 짚어가 시며 12층짜리는 18층으로, 9층짜리는 12층으로 높여야겠다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12층짜리 건물 을 3층씩 차이를 두고 계단식으로 1 2 층, 1 5 층, 1 8 층으로 그리고 20층짜리는 25층으로 높이도록

해주시였다. 일군들의 격정은 놀라움으로 바뀌 였다. 그이의 손길이 움직일 때마다 륜환선거리가 천하절승 금강산의 희 한한 모습으로 바뀌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생겨난 금강산에 비로봉을 세워주시듯 25 층짜리의 건물모형을 30층으로 높 이도록 해주시였다.

륜환선거리가 우뚝 치솟아오르

통 하 여

회상기연구발표모임에서 토론자들

은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어떤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도 절대로 변치 않는

중심부가 더더욱 키돋움하며 치솟 아오르는것이였다.

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수도의

그 광경이야말로 금강산의 절경을

니 이 거리에 잇

닿아있는 여러 거 리들이 함께 립체

이루고도 남을만 하였다. 연방 탄성만 터뜨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 층살림집은 덩지가 크게 짓는것보다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높이 짓는것이 더 보기 좋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에 아직 30층짜리 살림 집이 없는데 이번에 3 0 층짜리 살림집을 건설해보아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수도의 살림집건설과 우리 나라 도시건설의 새로운 비약 을 알리는 력사적인 순간이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 군들의 지혜가 모자랄 때면 지혜를 주시고 힘이 모자라면 힘을 주시며 거리형성을 새롭게 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그후 새 거리건설을 위한 설계와 그 형성 안이 훌륭히 완성되게 되였으며 평양시의 중심에는 금강산절경-창광거리가 솟아나게 되였다.

리 은 희

을 백절불굴의 의지로 뚫고나갈 결의 를 다졌다.

회상기학습의 실효는 석탄증산을 위 승리가 보인다!》에 대한 연구발표

한 실천투쟁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탄 광의 당원들과 탄부들은 항일혁명투사 들처럼 살며 일해갈 불같은 마음을 안고 과감한 증산전투를 벌려나갔다.

로농통신원 연전행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제 환히 집안일처럼 알게 당에서

일 군들 이 사상공세의

온 나라에 전례없는 학습전투 열기가 차넘치는 가운데 평안북 도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 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으로부터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즉시 에 온 도를 학습전투의 불도가 니로 만들었다.

조선로동당 제 8 차 사상일군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의 력사적인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 당겨나가자» 를 무한한 격동 속에 받아안은 도당위원회일 군들은 연설의 사상과 정신으 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 을 실천과 결부하여 전투적으 로 진행하면서 일대 사상공세 를 들이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적으로 다시한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분헌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 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사상공세의 돌파 구를 열어나가야 하겠습 LICH. »

도당위원회에서는 도당일군 들부터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실

도 연설의 자자구구를 뼈와 살로 임일군은 문구마다에 새겨진

만들기 위한 학습전투를 잘 짜 고들어 진행하도록 하였다. 부서별로 학습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체계를 먼저 파악한데 기초하여 원문학습을 강화하도

도당위원회안에 매일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학습 하는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하

록 하였다.

는 기풍이 철저히 세워졌다. 조직부, 선전선동부의 일군들 이 학습전투의 앞장에 섰다.

특히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는 사업 에서 기수는 사상일군들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연설원문 학습을 강화하여 연설내용을 완 전히 소화하였을뿐아니라 새로 운 문장, 문구들에 대하여서는 그 의미를 깊이 연구하고 실천

구해 나갔다. 위원회안의 각 부서들에서는 여러 계기들을 리용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내용에 대한 일군 들의 인식정도를 료해하여보고 대책을 세우고있다.

에 구현하기 위한 방도들을 탐

얼마전 어느 한 모임뒤끝에 문답의 방법으로 연설내용인식 정도를 료해해본 조직부의 책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깊이있게 해설해주면서 우리 당사상사업의 대백과전서 인 연설에 완전히 정통하여야 당선전부문과 당조직부문의 치 밀한 배합작전도 잘할수 있다 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원문 학습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모든 부서일군들이 연설의 사상 과 내용을 환히 꿰들게 되였으 며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 하기 위한 방도를 정확히 찾아 나가게 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급기관 들과 시, 군들에서 학습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 게 짜고들었다.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내용 을 알기 쉽게 체계화하여 전개 한 학습자료를 지체없이 만들 어 시, 군, 련합기업소당위원회 들에 배포하기 위한 전투를 벌

교양, 강연, 선동망을 통하여 하나가 열,열이 백,백이 천을 무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들이 취해지고있다.

도안의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보다 높 이고 대중교양의 실효를 높이도 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들끓는 현실에 들어가 대중의 심장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 를 심어주기 위한 일대 사상공 세를 맹렬히 벌리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충정으로 불타는 어느 한 전투 장에 나간 도당위원회책임일군 들은 대원수님들에 대한 그리움 으로 심장을 끓이고있는 근로자 들속에 들어가 당정책을 론리정 연하고 설득력있게 해설선전하 면서 그들의 사상을 더욱 발동 시키고있다.

1970년대 일군들처럼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정책 해설도서들을 비롯한 사상정신 적량식이 들어찬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간 도당위원회일 군들은 기름내, 흙내를 풍기며 당정책의 옹호자, 선전자, 관철 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룡천벌과 운전벌 등 경제강국 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전선 에 달려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 이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 부터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돌파 구를 열어가고있다.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분조 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 데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 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 자》의 내용을 깊이있게 해설해 주고 서한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 알곡생 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고 호소하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애

국열의를 남김없이 폭발시키고

있다.

그 들 은 경 애 하 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 홍건도 간석지건설장 등 대고조로 들 끓는 전투장들에 달려나간 도 당위원회일군들도 당원들과 근 로자들속에 들어가 강성국가건 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 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고한 뜻을 깊이있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을 혁신에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고있다.

주체의 사상론을 확고히 틀 어쥐고 우리 당사상전선의 기 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 하고있는 도당위원회일군들의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사업기풍 에 의하여 도안의 이르는 곳마 다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학습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 대중의 정신력이 비상히 앙양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 향 란

교재, 대백과전서 훌륭 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목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 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인민대중의 확고한 신 념으로 만드는것이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은 혁명적인 학습과 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되게 됩니다.그 러니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 는 임무이며 실천의 첫 공정이라고 말할수 있 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받아안 고 사상공세의 출발진지를 차지한 당사상일군 들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이다. 옳은 말이다.

그가 누구든지 혁명사상학습을 게을리하게 되면 머리속에 공백이 생기고 쉬가 쓸게 되며 부르죠아사상이 침습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자 연히 시대의 락오자가 되며 나중에는 반당의 길 을 걷게 된다. 이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이처럼 혁명적신념을 간직하는 사업과 직결된 중요 한 문제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 자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훌륭한 교재이며 대 백과전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들과 당분헌들은 유일사상교양의 훌륭한 교재이 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집대성되여있

는 대백과전서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들과 당문헌 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여기 에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분야에서 튼튼히 틀 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전술적문제로부터 주체형 의 혁명적인간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 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밝혀 져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과 당문헌을 뼈와 살로 새길 때 광명을 받아안게 되고 난판극복의 힘 을 얻게 되며 기적창조의 열쇠를 쥐게 된다.

◇온 나라에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일으켜나 가야 한다.전당적으로 다시한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 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학습열풍을 일으켜 나가는데서 기수가 되여야 한다.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깊이 학습하여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당의 혁명전 통과 계급의식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학습도 전투이다. 온 나라를 전례없는 학습열 기로 부글부글 끓는 학습전투도가니로 만들어 야 하다.

학습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여야 한다. 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 여야 한다. 그리하여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을 통하여 자신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 로, 당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판철자로 튼튼히 준비할 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최후승리는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만경대봉화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조선로동당 제 8차 사상일군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 서 당과 혁명대 亚 오의 사상적일색 화를 위한 사업 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하여

0 가르쳐주시였다. 지난 기간 절세의 위인들의 혁명력사도록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전국에 크게 소문을 낸 만 경 대 봉 화 피복공장 초급당 위원회 일군들은 경 애 하 는 원수님의 력사적 연설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도 역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의 사상은 혁명적언 사나 맹세보다 실천과 결과에

서 나라납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대회이 후 사상공세를 벌려나가는데서 주목되는 점의 하나는 초급일군 들이 종업원들에 대한 학습지도 를 철저히 실천과 결부하여 진 행하도록 하고있는것이다.

며칠전에 있은 일이였다.

초급당비서 리순임동무의 방 으로 공장의 어느 한 당초급일 군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다.

찾아온 사연인즉 자기 단위에 서 일부 종업원들이 맡겨진 생 산과제수행에서 뒤떨어지고있 는 문제때문이였다. 그러면서 당초급일군은 자기는 할바를 다

한것처럼 말하는것이였다. 자초지종을 듣고난 초급당비

서의 마음은 무거웠다. 뒤떨어진 종업원들도 그렇지 만 당초급일군의 관점과 립장이 더 마음에 걸리였던것이다.

초급당비서는 력사적인 조선 로동당 제 8차 사상일군대회이 후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 업을 해나가는 초급일군들의 사 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 화이 일어나야 하겠는데 그는 아 직 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고 보았다.

(학습을 하나 조직하고 교양 사업을 하나 해도 천편일률식으 로 해서는 안된다. 종업원들의 특성에 맞게 미리 개별교양도 하고 학습담화도 참신하게 하였 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것이

아닌가?) 초급당일군은 이 문제를 계기 로 당초급일군들이 종업원들에 대한 학습담화를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대상의 특성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여야겠

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였다. 그것은 동시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 된 조선로동당 제 8차 사상일군 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닌 자신에게 스스로 새롭게 제기하 는 높은 요구성이기도 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공장의 당초급

일군들속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학습담화를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 여 대상의 특성에 맞게, 실속있게

하는 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그것은 그대로 실천에서 커다 란 은을 나타내여 높은 생산실 적으로 이어지게 되였다.

부비서 황보혁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모든 초급 일군들이 성과가 클수록 학습담 화를 보다 참신하게 해나가도록 그들을 적극 이끌어주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한 직장의 초급일군들이 종업원들에 대한 학습담화에서 놓치고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초급당비서는 그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들을 내놓 았다. 그것은 현장에 나와 종업원 들의 일손도 도와주며 허물없이 담화하는 과정에 찾게 된 실효성 있는 학습담화방법들이였다.

초급일군들은 종업원들에 대 한 학습담화를 그들의 준비정도 와 특성에 맞게, 실천과 보다 접히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초급당위원회가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사상사업들의 실효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을 옹위 하는 돌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 자가 되려는 각오가 온 공장에 차 넘치는 속에 비약의 불바람이 더 욱 세차게 휘몰아쳤다.

지난 1월과 2월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자랑을 안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용기백배, 기 세충천하여 기적과 혁신의 날과 날들을 수놓아가고있다.

항구구역 갈천리당위 원회에서 일군들과 농장 원들속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

인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들도록 하 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 진 행하고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학습에서 계기를 주동적으로 마 련하고 그 준비를 실속있게 하 고있는것이다.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는 내용과 함께 방법이 또한 중요합 LICH. »

우선 계기를 주동적으로 마련 한것이다.얼마전에 있은 선동 원들의 모임을 놓고보자. 리당위원회가 주동적으로

납포시 항구구역 갈천리당위원회에서 이 모임을 열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 8 차 사상일군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에 접한 리당위원회에서는 연설의 사상 과 정신을 즉시 구현하기 위하여 당초급선전일군들부터 철저히 준비시키기로 하였던것이다.

그날모임은 모든 선동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의 사상 과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학습전투였다.

력사적인 연설의 자자구구를 깊이 연구체득하도록 한 다음 문답식방법으로 실천과 결부하

학습에서 계기를 주동적으로 마련한것,이것이 첫째로 주목 하게 되는 점이다.

시켜나갔다.

계기는 주동적으로, 준비는 실속있게

여 공고히 하게 한 그날의 모임

은 선동원들을 먼저 준비시킴

으로써 온 농장에 학습열풍을

일으키도록 하는데서 큰 작용

을 하였다. 이밖에도 리당위원

회에서는 담화, 가정방문 등 계

기와 공정을 주동적으로 마련

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우

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학습을 더욱 심화

다음으로 학습준비를 실속있

면 그 준비부터 실속있게 해야 한다. 5호담당선전원들의 역할 을 높인 사실을 놓고보자. 리당위원회에서는 우선 5호

사전에 마련된다는 말도 있듯이

학습에서 응당한 실효를 거두자

담당선전원들에게 자체학습방향 을 구체적으로 주었다.

로작의 매 체계에 따르는 학 습문제를 주는것과 함께 여러 모 임과 계기들에서 로작이 담고있 는 사상과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매 선전원들이 로작 의 사상과 내용을 완전히 자기 의것으로 소화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5호담당선전원들의 활 동정형과 자체학습실태 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부족점을 바로잡아주어 그들이 로작의 체계와 로작이

담고있는 사상과 내용을 깊이 파악하도록 도와주었다. 이와 함께 그들속에서 학습토 론과 론쟁을 자주 조직하여 문

제의 본질과 내용을 완전히 파 악하도록 하였다. 이런 충분한 준비밑에 진행된 5호담당선전원들의 사상교양 사업이 어떤 실효를 거두었으리

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학습준비를 실속있게, 이것이 이곳 리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 에서 주목하게 되는 두번째 점

본사기자 최 영 길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개성시 립한리당위원회에서

개성시 림한리당위원회에서는 농장원들속에서 항일빨찌산참가 자들의 회상기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이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발휘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 렬한 사랑, 혁명승리에 대한 확 고한 신념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 및 근로 단체조직들에서 분기별, 월별회 상기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 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독보, 해설, 이야기모임, 연구발 표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 본사기자 리정수

법으로 회상기학습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특히 선동원들 의 역할을 높이고있다.

얼마전 제4작업반 1분조 선동 원은 작업의 쉴참에 항일빨찌산참 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를 가지고 분조원들속에 서 연구발표모임을 진행하였다.

실효는 컸다. 분조원들은 항 일혁명투사 최희숙동지처럼 혁 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 라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 를 다지였다. 이날 작업반원들 은 하루작업과제를 오전중에 수 행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로농통신원 류 승 균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분헌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있는 근로자들 - 인 민 대 학 습 당 에 서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대고조전투장들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인 자 랑드높이 연암갱목생산사업소 의 로동계급이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 다.지난 2월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사업소에서는 지금 분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

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통나무생산을 끊임없이 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필 요한 목재를 원만히 보장하 는것은 림업부분앞에 나서고 있는 기본과업입니다. 》

사업소의 당일군들은

연 암 갱 복 생 산 사 업 소 에 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 8 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화 선선전, 화선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사업소의 모든 일 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 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 들을 발동시키고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려 비약의 열풍이 온 산

혁신의 앞장에는 동계수, 박 천작업소들이 서있다.

통나무를 실어나르고 자동차운

전사들은 구배가 심하고 거리가

판에 차넘치게 하고있다. 기관사들이 림철기관차에 만 가동, 만부하를 걸어 매일 많은 먼 산판작업소토장들을 찾아 운 행길을 힘차게 달리고있다.

소박천작업소의 생산자들은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매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사업소의 굴송수 송작업반 전투원들은 기중기정 비를 책임적으로 하고 상하차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 생산 된 통나무를 건설장들에 제때 에 실어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

력하고있다. 림철기관구작업반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림철기판 차수리를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을 때

림철길보선작업반원들은 침목 교체와 철다리보수, 철길의 기 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두줄기 궤 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고있다. 림철대차작업반과 공무직장 에서는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찾아내여 대차수리와 정비를 실 속있게 하고 여러가지 부속품들 을 자체로 생산하거나 수리하여 현장들에 보내주고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은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집단적혁신의 불길 을 세차게 지퍼올리며 전투성과 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본사편집위원회에서는 올해에 농업을 주타격방향으 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받 들고 농업생산에 떨쳐나선 일 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도

석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제 3 작업반 1 분조는 최근년간 농사에서 앞장선 단위로 알려져 있다. 그 비결을 물으면 이곳 농장원들은 《거름의 덕이 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 느 분조에서나 다 거름을 생산 리용하고있는데 알곡수확고에 서 이 분조와 차이나는것은 무

움을 주기 위해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이

엇때문인가? 위 대 한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땅을 걸구고 지력을 높일수 있으며 안전하게 높은 수확을 낼수 있습니다.》

농사차비로 들끓고있던 몇해전 겨울이였다. 거름생산전투장을 돌아보는 분조장 림춘실동무의 마음은 개운하지 못하였다. 전해 에 정보당 수십1의 거름을 생산하 여 포전에 냈는데 수확고가 더 오 르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던 그는 토양분 석자료에 눈길이 가게 되였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란 표제아래 기사들을 련재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

료

한다. 기사에서 취급된 경험들은 농업생산실천에서 은이 나고 있는 자료들이지만 과학적인 연구와 해명을 더 심화시켜야 할것이다.

분조포전에 대한 토양분석자 료는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되여 있었다. 필지별토양페하만이 아 니라 부식함량, 토양의 알갱이 조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런것을 무시하고 거름을 내 였으니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

일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작업반과 농장의 기술일군들의 방조밑에 거름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생 산하고 실어내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게 되였다.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세 운 거름생산대책을 놓고보자. 분조에서는 우선 포전을 3가 지 지표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즉 토양의 폐하, 부식함량, 알갱 이조성에 따라 포전을 분류하

페하가 높은 포전에는 주로 질흙과 진거름을 가지고 만든 거름을 냈다. 질흙은 물기와 비 료성분을 빨아들이는 힘이 세기 때문에 진거름에 재우면 비료성 분이 흙알갱이에 인차 들어붙고

제 3 작업 반 물기가 빨리 잦아들어 지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았다.

분조에서는 섞음재료의 물기 및 비료성분을 빨아들이는 능 력, 물동량을 다같이 고려하여 진거름과 질흙의 비률을 1:3 이 되게 정하였다. 거름을 포전 에 실어낼 때 무지를 너무 작게 하면 질소성분이 적지 않게 날 아나고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크게 하면 거름을 펼 때 품이 많 이 들었다. 그래서 분조에서는 1 500평에 3~4개 무지를 만들었다.

페하가 낮은 포전에는 석탄 재에 진거름을 섞은 거름을 냈다. 석탄재를 리용하여 만든 거름은 알카리성을 띠므로 토양 의 폐하를 알맞게 보장할수 있 을뿐아니라 카리성분도 보충할

수 있었다. 분조에서는 부식함량이 적은 포전에는 거름과 함께 흙보산비 료를 많이 냈다. 흙보산비료에 는 여러가지 부식질이 많이 들 어있으므로 토양속의 부식함량 을 높일수 있었다. 더우기 흙보 산비료는 토양의 흡착용량을 크 게 하므로 질소비료의 손실을 적게 하고 린비료의 풀림성을

높여주었다. 분조에서는 가을에 낟알짚을 모두 거두어들여 진거름과 섞어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였다. 이것

1 분 조 에 서 을 리용하여 부식함량이 적은 포전에서도 높은 수확을 거두게

> 되였다. 분조에서는 람조류생물활성 퇴비를 생산하여 토양알갱이조 성이 각이한 논의 특성에 맞게

> 냈다. 람조류생물활성퇴비는 종전 에 널리 리용하던 생물활성퇴비 에 람조류균을 접종시킨것인데 만들기도 쉽고 경제적효과성이 대단히 높았다. 이 퇴비를 포전 에 내면 다른 유기질비료를 냈

> 을 때보다 효과가 컸다. 분조에서는 여러해동안의 시 험끝에 메흙논과 질메흙논의 특 성에 맞게 람조류생물활성퇴비 를 리용함으로써 알곡생산량을 늘이였다. 지난 시기 분조에서 는 도시거름을 실어들일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토양상 태에 관계없이 석탄재가 많이 섞인 거름을 냈다. 그러다나니 알굑 정보당 8t정도밖에 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년간에는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거름 도 과학기술적으로 냄으로써 정

> 보당 수확고를 훨씬 높이였다. 이 분조에서처럼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도 토양분석자료에 기 초하여 과학기술적으로 할 때 어디서나 높은 수확을 거둘수

>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윤용호

(६०० र वर्ष ६००) १६६ मान्य स्थापनाः BILLA

생 산 하 기 위 하 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강계청년발전소 3호발전소에서-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와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변모된다

孙 **卫** 보 수 공 ગ્રે 君 フ 对 개 对 예

본보기창조 체 육 시 설 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분에서 선군시대 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불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로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분명한 생활을 안겨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5월 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얼마전에 우리는 대건설전투 의 숨결이 세차게 맥박치는 공 사장에서 해당 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공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 기해주었으면 한다.

조선인민군 군관 연수일: 5월 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진 경기 장을 주체체육과 건축의 본보기 적창조물로 일신시키는 중요하 고도 영예로운 애국사업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는 지난해 9월 몸소 현지에 나 오시여 온 나라가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 경기장개건보수공사와 관련한 수많은 설계형성안들을 보아주 시고 강력한 건설력량편성과 자재 보장문제에 대하여서도 구체적 으로 밝혀주시였다.

기자:경기장개건보수공사가 전례없이 거창한 규모로 진행된 다고 본다.

5월 1일경기장 지배인 리병 관:그렇다. 지난 시기 수많은 국내국제경기들과 제 1 3차 세 계청년학생축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비롯한 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경 기자: 5월 1 일경기장개건보 기장의 개건보수공사는 규모가 대단히 크며 그만큼 공사량도

박대하다. 경기장의 지붕과 관람석, 축 구장과 륙상주로, 건물내외부의 철거면적은 무려 수십만m²에 달 하며 세부적인 개건보수대상은 1 000여개가 넘는다.

각종 건설자재와 마감자재소 요량도 대단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큰 규모의 5월1일경기장개건보 수공사를 국가적인 힘을 넣어 짧 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끼도록 크 5월 1일경기장을 현대적으로 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기자: 5월 1일경기장이 어떤 형식의 종합경기장으로 일신되 는가에 대하여 알고싶다.

국가설계지도국 부국장 박명 철:5월1일경기장은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 하여 세상에 자랑할만 한 현대 적인 종합경기장으로 훌륭히 개 건보수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설계단위들을 망라시켜 현상응모의 방법으로 경기장의 개건보수공사설계를 최상의 수 준에서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

체육훈련과 경기보장, 관리운 영과 편의봉사부분으로 구별되 는 경기장의 모든 시설은 국제 기준에 부합되면서도 건축구조 와 형식이 새롭고 독특하게 꾸 려진다. 토론회실과 기자실, 감 독실, 약물검사실과 다양한 체 육종목의 선수들을 위한 육체훈 련장과 수영장, 체육과학지식보 급실이 문명을 과시하는 경기장 의 체모에 어울리도록 황홀하게

선수휴계실에서 경기장으로 통하는 구간에는 선수들이 오가는 출입구를 새로 내며 경기장의 매 층에는 위생실을 빠짐없이 배치하여 관람자들의 편의도 최

대한 도모하게 된다. 경기장판 방향으로 정하고 필요한 자재보 람석에는 보기에도 편리한 등받 이의자들을 놓고 여러 개소에

대형전광판들도 설치하게 된다. 경기장을 리용할 사람들의 문 화정서생활과 건물의 관리운영 에 필요한 시설들도 현대적으로 꾸려진다. 곳곳에 안마실과 샤 와실 등을 갖춘 피로회복실과 구급치료실들을 배치하며 새로 형성되는 주차장들의 주변에는 상업봉사망들도 즐비하게 들어 앉게 된다.

경기장건물의 외벽은 감색을 비롯한 이채로운 색갈의 타일과 돌건재를 리용하여 건축물의 조 형예술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

기자:건설자들의 앙양된 열 의속에 현장의 분위기가 대단히 좋다고 본다.

조선인민군 군관 연수일:현 재 공사는 경기장의 건물과 지 붕, 관람석에서 립체적으로 벌 어지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군민협동작 전으로 공사 전기간 높은 실적을 내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목 표를 내세웠다. 런이어 시공단위 들이 보온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맡은 공사를 대상별, 일정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을 주타격

장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지금 여러 부대의 군인건설자 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의 명령을 무조건 결사관철할 일념을 안고 방대한 철거공사를 끝내고 다음단계공사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부대별로 적지 않은 기공구와 자재를 자체 의 힘으로 마련하면서 건물내외 부벽체와 천정미장공사의 속도 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

고있다.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남: 모든 시공단위 건설자들 은 날이 갈수록 더 높은 건설성과 를 이룩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 은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 을 본받아 현장정리를 규모있게 하면서 계단돌가공을 비롯한 맡 은 시공에서 비상한 정신력을 발휘하고있다.

한편 내각과 여러 성,중앙기 관들, 련관단위들에서 건설기계 와 자재보장을 위한 련대적혁신 이 일어나고 매일같이 공사장을 찾는 야간지원청년돌격대원들의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현장의 분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조선인민군 김금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위대한 령도자 지 지 전 인 동지 께 서 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 였다.

《인민군대는 선군 혁명의 기수, 주력군 답게 오늘의 혁명적 대고조에서 선도자적 역할을 하여야 합 LICH. »

건설에서 새로운 번 영기를 열어놓을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 안고 5월1일경기장개 건보수공사에 참가한 조 선인민군 김금철소속부 선인인인 미미 전인인 전에 군인건설자들의 결의 는 높고 일본새도 새롭 다. 이들이 대건설전투

장에 불러준 당의 믿음 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 할 마음안고 격전속에 맞고보낸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나날 이 들은 뜨거운 심장의 열 도로 어려운 공사조건을 박차며 시공성과를 부쩍 확대하였다.

부대는 경기장의 관람석부분과 선수훈련실, 봉사시설과 위생실 을 비롯한 적지 않은 개건대상 을 맡고있다. 작업량은 아름차 고 자재소요량도 적지 않다. 하 본사기자 지원철 지만 부대장병들은 어떤 조건에

서도 맡은 공사를 대상별, 일정 별로 손색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분과 초를 이어가고있다.

- 시공의 질이자 건설물의 질

이 하나의 일념을 간직한 지 휘관과 병사들은 강바람이 기승 을 부리는 속에서 가설막도 치 기 전에 작업장을 보온하기 위 한 공사준비를 다그쳤다.

부대지휘관들이 혁신의 불씨 가 되였다. 결과 한주일동안에 200여t의 연재와 5천여m² 의 비닐박막을 비롯한 수십가지 의 보온자재가 확보되였다. 이곳 지휘관, 병사들은 공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일수 있는 첫걸음을 이렇게 내짚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전투장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구분 대별로 건물벽체와 바닥철거작 업이 불이 번쩍 나게 추진되던 과정에 기계화비중을 높이는 공 법이 련이어 창안되였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건물 철거작업을 남먼저 끝내고 필요 한 자재를 원만히 확보한데 기 초하여 수천m²에 달하는 2중천 정구조물형성과 벽체미장작업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 장하였다. 이 모든것이 결코 헐 하게 이룩된 성과가 아니다.

시공의 질에 병사의 량심이 비낀다는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부대의 장병들이 새겨온 위훈의 자욱은 그 얼마였던가.

부대아래 김창학소속구분대와 리복남소속구분대를 비롯한 여러 구분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 들은 미장면에 자그마한 균렬도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흐름식으 로 추진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 다. 이들은 건물내부의 층고가 높 은데 맞게 많은 발판을 확보해놓 고 단번에 벽체와 천정의 폭을 수 m씩 누비며 성과를 확대하였다.

어찌 그뿐이랴. 밖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건물안에서 용접의 불꽃을 쉬임없 이 날린 병사들과 구조물의 양생 온도보장을 위해 한몸이 그대로 찬바람을 막는 보온벽이 되여 새 날을 맞고보낸 미더운 병사들…

그들의 위훈에 떠받들려 부대 가 맡은 새 구조물들이 손색없 이 형성되고 미장공사에 필요한 질좋은 모래가 다량생산되여 건물 내부의 천정과 벽체는 몰라보게 일신되였다. 지금도 부대의 지휘 판, 병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영예로운 대건설전투에서 혁혁한 위훈을 아로새기고있다.

본사기자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조 선 인 민 군 김 봉 준 소 속 부 대 에 서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펼쳐 가는 성스러운 투쟁의 앞장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기상을 과시 할 불타는 열의안고 5월1일 경기장개건보수공사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김봉 준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결 사관철의 정신으로 날에날마다 자랑스러운 위훈을 창조해가고

공사의 첫시작부터 력량을 집 중하여 섬멸전을 벌려온 부대에 서는 지금 맡겨진 총공사량의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는 1층건 물내부와 여러 대상에 대한 미 장작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군 인 건 설 자 들 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천지개벽을 안아온것처럼 건설의 대번영 기를 펼치는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서 계속 영웅적위훈을 세워나감으로써 당군의 자랑 스러운 모습,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위력을 납김없 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5월 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 에서 부대앞에 나선 작업과제는 방대하다.경기장의 5분의 1에 해당한 건축면적에 권투, 유술, 씨름, 탁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 의 훈련실들과 수영장, 목욕실,

치료실, 안마실과 같은 문화후생 시설들, 식사실과 각종 봉사망을 포함하여 백수십개의 방을 새롭 게 일신시켜야 한다.

이에 맞게 잡도리를 단단히 한 부대지휘판들은 공사계획을 일별, 주별, 월별로 면밀히 세우 고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군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 전선동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 켜나가고있다.

공사장을 들었다놓는 기동예 술선동대원들의 힘찬 노래소리 와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선동원의 격동적인 목소리는 전 투원들의 사기를 한껏 북돋아주

작업장들마다 이동식속보판 을 전개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창조되는 군인건설자들의 혁신 으로써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

러일으키고있다.

부대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2 만여m²의 비닐박막을 마련하여 작업장의 보온대책을 세우는것 과 함께 수십개의 이동식불통과 6 0 여개의 화구를 설치함으로 써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공사를 일정대로 내밀었다. 세멘 트와 철근을 비롯한 자재보장대 책도 선행시켜 공사를 빠른 속도 로 진척시켜나갈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확고히 마련해가고있다.

시공에서 앞선 방법을 받아들 여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한 대중 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 오르고있다. 시공지휘를 맡은

하성민, 김철학, 박현철동무들 은 군인대중과 창조적지혜와 힘 을 합쳐 천정시공에서 품이 많 이 드는 기존공법이 아니라 지 상확대식조립방법을 받아들여 천정구조물을 설계의 요구대로 형성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부쩍

> 높이였다. 구분대별사회주의경쟁의 열 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부대아래 여금철소속구분대와 리경희소 속구분대의 전투원들이 매일 맡 겨진 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부대에서는 군인들의 후방사 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 다. 백영남, 정인학, 리학렬, 임 근철동무를 비로하 지희과들은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군인들의 식생활을 높이기 위해 발이 닳 도록 뛰고 또 뜀으로써 창조와 위훈으로 들끓는 전투장에 활력 을 북돋아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무조건 드림없이 결사관 철할 각오를 가지고 혁신의 불 바람을 일으키는 부대지휘판. 병사들의 전투적열의속에 공사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기념비적창조불들을 많이 일떠세우면 그만큼 강성 국가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 고 인민들의 행복의 러전이 훌륭히 마련되게 됩니다.》

불같은 날과 달이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름을 받 들고 5월1일경기장개건보수 공사장에 달려나온 속도전청년 돌격대원들이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올리자! 이런 하나의 생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낮에 밤을 이어 기적 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돌격대 원들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는 거창한 설계도우에 5월1일 경기장개건보수공사도 포함 시켜주시고 공사과정에 대하여

생각으로 심장을 도 전 청 년 돌 격 대

세심한 지도를 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인민의 문명정도를 보여 주는 건축물로 손색없이 꾸려야 한다고 하시며 훈련실이며 선수 휴계실, 샤와실에 이르기까지 건축형성안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그려

가다듬게 된다고 하는 돌격대원 들이다. 하기에 이들은 공사의 첫날부터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 하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개건보수공사의 첫 공정인 철

보면 힘이 솟고 새로운 각오를

거작업은 품이 많이 드는 작업 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더우기 기계수단을 쓸수 없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돌격대원들은 첫날부 하게 그려져있었다.

터 층별로 달라붙어 미장층철거 와 벽체철거,바닥철거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였다.

남자들도 힘겨워하는 작업에 서 혁신한 녀성돌격대원들도 있 었다. 잠을 설치고도 다음날이면 웃으며 또다시 전투장에 나서는 그들의 헌신성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라.

철거작업을 마무리하고 기본 건설공사에 착수하던 날, 작업 장에 도착한 돌격대원들의 심장 은 높뛰였다.

작업장의 벽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비준하여 주신 건축형성안이 정히 걸려있 었다. 그옆에는 월공정계획도와 함께 세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률 까지 반영한 공사기준표가 선명

작업장의 곳곳에는 이동식보 온난로들도 설치되여있었다. 《세계적수준의 기념비적창 조물건설을 맡겨주신 경애하는

에서

시다!》 지휘관의 호소는 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젖어들었다.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를 명심합

벽체축조와 미장, 층막구멍뚫 기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였다. 첫 날작업이 끝나고 현장을 돌아보 던 지휘관은 여러명의 돌격대원 들이 밤깊도록 현장을 떠날줄 모 르고 군데군데 모여 일하고있는 모습을 보게 되였다. 다가가보니 어떤 동무들은 진동모래채를 제 작하고있었고 또 다른 동무들은

반자동발판을 만들고있었다. 지휘관의 마음은 달아올랐

반자동발판이 작업에 도입됨으 로써 건설속도는 눈에 띄게 높 아졌다. 이때부터 창의고안열풍 이 더 세차게 타번졌다.

한 돌격대원이 구석미장을 손 쉽게 할수 있는 기공구를 만들 어내놓아 매일 벽체미장속도는 비약적으로 높아졌으며 녀성돌 격대원들까지 저마다 미장작업 을 하겠다고 나섰다.

김준걸동무를 비롯한 여러명 의 돌격대원들은 타일모서리 자 르는 기계를 창안하여 타일모서 리작업을 빠른 속도로 손색없이 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설구상 을 실현하는데서 다시한번 속도 전청년돌격대의 전투적위력을 떨쳐갈 불타는 열의로 가슴끓이 고있는 돌격대원들,

바로 이들이 쌓아가는 건설실 적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바치는 충정의 높이,조국애의 높이인 것이다.

본사기자 리철옥

다. 다음날부터 진동모래채와 공사장에 소문난 미더운 혁 신 자 들



조선인민군 리성철 본사기자 홍 철 호 소속부대 군관 황성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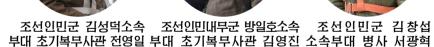
조선인민군 방두섭







소속부대 군관 라래복





떠받드는 강철기둥이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황해남도려단 김은혁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연극《혈분만국회》를 지도하여주신 30돐 기념공연 진행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를 지도하여 주신 30돐 기념공연이 12일 국립 연극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문학예술부문, 예술교육부문 일군

들과 창작가, 예술인, 교원,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장소에는 독창적인 연극혁명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식의 연극 창조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 였으며 주체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 고있었다.

최수헌 수리아주재 우리 나라

알 할끼 수리아아랍공화국 내각

수상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영생하는 수령들이신 하페즈

알 아싸드 전 대통령각하와

김일성주석각하께서 그 기초를

마련해주시고 오늘 바샤르 알 아싸

수상을 작별방문하였다.

수 리 아 내 각 수 상

서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 자주의식을 가지고 투쟁으로 독립 을 쟁취해야 한다는 사상을 천명한 연극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틀어잡 았다.

출연자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 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 성과 교활성 그리고 오로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길만이 민족 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생동한 예술적화폭 으로 형상하였다.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당대 사회의 시대상과 각계층 인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하여 나

드대통령과 김정은령도자각하의

되고있는 특수한 관계이라고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봉쇄와 압력

에 견결히 맞서나갈수 있다고 생각 확신한다.

작 별 방 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보여주면 라잃은 인민이 겪는 불행과 고통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다시금 절감하 였으며 또 한분의 희세의 선군령장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 을 누리는 무한한 민족적긍지와 자부 심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주체 문학예술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 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 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사회 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 기 위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조선의 모든 승리와 성과는 김정은령도자각하께서 현명하시고 조선로동당이 강하며 조선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있기 때문에 이룩될수 있었다.

김정은령도자각하께 우리의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 따뜻하고 친선적인 인사를 전하 여드릴것을 부탁한다. 김정은령도자각하께서 계시여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여러 조선의 당과 정부, 인민이 미국을

한목숨바쳐 주체철용광로를 구원해냄 으로써 강철로 당을 받드는 김철로동 계급의 고결한 정신세계가 과연 어떤

으로 살아야 합니다.》 박현철동무의 고향은 강원도 천내 군이다. 제대되여 부모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갈수도 있었지만 그는 굳이 철의 기지 김철로 달려왔다. 그리고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주체철 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금속 공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심장에 새길수록 기어이 주체철생산에 한몫하리라는 불같은 맹세가 그의 심장을 꽉 틀어잡 았다.

중요하고 책임적인 위치였다.

- 내 주체철로 부강조국을 뗘받드는

수놓아갔다. 불같은 사람, 누구나 박현철동무를

험생산을 계속할수 있게 하였다. 이때만이 아니였다. 가스승압기에서 나는 몸이였지만 동무들의 만류에도 소들을 퇴치함으로써 통풍시간을 앞

시험생산과정에는 난판이 한두가지 가 아니였다. 불순물로 하여 제진기가 메는 일도 있었다. 불순물을 어떤 방법 으로 어떻게 제거하겠는가를 두고 모 두가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던 때였다. 불현듯 박현철동무가 분무탑과 수 분분리기들의 밑부분에 고압으로 물 을 쏘아주는 장치를 설치하면 되지 않 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단순하

그의 착상이 실현되여 가스정제효 률이 높아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였다. 더우기 그 기술혁신 성과로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제진기의 웃부분을 개조 하여 제진효률을 높인것을 비롯하여 박현철동무가 내놓은 기술혁신안들은 오늘도 새로운 철생산체계확립을 위

내놓은 하나하나의 착상과 기술혁신 안들에 우리 동무들은 물론 전문가들 도 탄복하군 하였습니다. 그는 확실히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리라는것을

믿고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였기에 함께 일하는 작업 반원들을 귀중한 혁명동지로, 친형제 로 여기고 진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지난해 9월 박현철동무는 휴가를 신청하였다. 뜻밖이였다. 제대되여 고향 집을 다녀온 후로는 휴가를 받지 않겠 다고 하던 그였다. 휴가신청서를 받아 든 직장장이 놀라움과 기쁨어린 표정 을 지어보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휴가기간에 푹 쉬는것이 동무가 해야 할 일이라는걸 명심하오.》 하지만 그가 자기의 휴가를 작업반 에서 함께 일하는 최철원동무의 집수 리에 바쳤다는것을 후에 알게 된 직장

일군들은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가정사정이 어려운 작업반원을 위해 안해와 토론하고 자기 가정에서 절약한 식량을 뚝 뗴여 보내주고 불이 잘 들지 않아 애를 먹고있는 작업반동무를 위해 밤새워가며 부뚜막을 수리해주었다는 이야기는 박현철동무의 뜨거운 인간미 를 보여주는 몇가지 사실에 불과하다.

그러한 박현철동무의 가슴속에는 오직 하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바라 시던 주체철생산체계를 하루빨리 완성 하여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 한마 음뿐이였다는것을 작업반원들은 그의 영웅적인 최후를 통해 더욱 뜨겁게 느 끼였다고 오늘도 이야기하고있다.

지난해 12월 31일이였다. 뜻하지 않게 용광로의 열가스판이 달아오르면 서 로가 폭발될 위험성이 조성되였다. 열가스판을 식히자면 가스승압기를 돌 려야 하였다. 분초를 다투는 그 순간 박

《그는 무서운 정열가였습니다. 그가 현철동무를 비롯한 4명의 사람들이 승 압장으로 뛰여들었다. 박현철동무는 위 험을 무릅쓰고 맡은 출구발브를 성과 적으로 열어제끼였다. 밖으로 나왔던 그는 아직 육중한 입구발브를 채 열지

> 못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다시 승압장으로 뛰여들었다. 벌써 가스농도는 위험수치를 넘어섰 다. 동무들이 만류하였지만 누구도 그 를 당해낼수가 없었다.

> 《안돼. 저게 어떤 용광로요. …》 다만 그의 마지막웨침만이 사람들의 귀전을 때릴뿐이였다. 그는 끝내 입구 발브를 열어제꼈고 발브를 그러안고

> 쓰러진채 숨을 거두었다.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내댄 박현 철동무, 그가 가스농도가 짙은 승압장 으로 다시 뛰여들어가 발브를 연 시간 은 불과 1분도 되나마나하였다.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 시각에 그는 자기 한몸이 아니라 주체철용광로부터 먼 저 생각했었다. 그 1분에 주체철생산 을 위해 자기의 온넋을 깡그리 바친 박현철동무의 아름답고 참된 삶이 그

> 대로 비껴있다. 애국으로 높뛰던 그의 심장의 열기 인양 철의 기지의 주체철용팡로는 오 늘도 열풍을 확확 내뿜으며 거세게 숨 쉬고있다. 그 로앞에서 로동자들은 오 늘도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은 박현

> 철동무의 심장의 목소리를 듣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강철기둥 으로 결사용위하자.

> 김철의 로동계급은 이런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지금 이 시각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심장의 더운 피를 펄펄 끓이고있다.

> > 특파기자 리은 남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대사가 5일 와일 나디르 각별한 관심속에 더욱 공고발전

수리아에서의 3월8일혁명 51돐 에 즈음하여 따맘 쑬레이만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2일 조선수리아 친선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참관하

손님들은 먼저 조사공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을 진정한 다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은정속 에 공장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에

수 리 아 대 사 관 성 원 들 숙평양제사공장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생산 공정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림시대리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깊은 관심 속에 훌륭히 꾸려진 공장을 돌아 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이 공장은 적대세력들의 압살책

동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힘으로 생 산적앙양을 일으켜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최근년간 공장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만 보아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에

분야에서 보다 확대발전되리라고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오늘도 조국을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철용광로직장 로동자였던 박현철동무

철련합기업소의 사람들속에 잘 알려 지지 않은 평범한 로동자였다.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때로부터 지난 1 5년동안 그는 당이 맡겨준 초소를 지켜 성실하게 일해온 김철의 많은 제

스배송공이였던 박현철동무는 김책제

대군인로동자들중의 한사람이였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위험속에서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한순간을 살아도 영웅적

것인가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주체철용광로직장에 자기의 삶의 좌 표를 정하였다.

그는 자진하여 직장에서도 어렵고 힘든 초소인 압축기작업반 가스배송 공일을 맡아나섰다. 헐치 않은 일이였 지만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 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기둥이 되리라.

주체철용광로직장 압축기작업반 가 의 하루하루를 성실한 땀과 위훈으로

이렇게 불렀다. 주체철시험생산이 한창이던 때였다. 정상으로 돌아가던 압축기의 변에 이상이 생겼다. 언제 가스가 루출될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 박현철동무는 주 저없이 현장에 뛰여들어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변교체작업을 진행하여 시

가스루출현상이 발견되여 주체철용광 로를 세우게 되였을 때 그는 고열이 불구하고 작업현장에 나와 불량한 개 당기고 로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면서도 기발한 착상이였다.

한 시험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압축기작업반 이런 결심을 안고 그는 평범한 로동 반장 김영복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9명의 승객이 탄 소형뻐스가 얼음덮인 산길을 톺고있다. 삼수발전소의 웅장한 모습이 차창에 어리였다. 조금 더 가면

삼수군 관덕리이다.거기에 9명 승객중 한사람인 우효성의 본가집이 있다. 혜산에서 떠날 때 전화로 알

렸으니 어머니가 동구밖에 마중 나올것이라고 효성은 생각하였 다. 보고싶은 어머니, 정깊은 그 품을 찾아 만삭이 다된 몸으로 수백리길을 떠난 그였다.

우효성이 남편 리광복과 함께 신안주청년역에서 혜산행렬차 를 탄것은 설명절이 지난 다음 날이다. 문덕군으로 시집와서 근 1년만에 본가집을 찾게 되 는 효성은 기분이 붕 뗘서 가락 맞게 동음을 울리는 렬차의 창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짙어 가는 속에서 흰눈덮인 열두삼천 리벌이 손저어 바래주듯 뉘엿뉘 엿 흘러가고있었다.

(우리 판덕마을은 온통 눈세 계일거야.)

우효성은 눈을 감은채 그리운 부모님들이 계시는 정든 관덕마 을을 그려보았다.

며칠전부터 그는 본가집에 가 고싶다고 남편에게 졸랐었다. 《그 몸으로 일없겠소?》

광복은 만삭이 되여오는 안해 가 걱정스러운지 미심쩍은 눈길 로 쳐다보았다.

조건으로 보아도 심심산골인 삼수군 관덕리보다 그들이 살고 있는 벌방 문덕땅이 더 좋다. 며느리가 첫아기를 낳게 되였다. 고 시부모들은 매일같이 극성이

리인민병원 의사들은 어김없 이 검진을 하면서 그의 몸에 이

실 화

상이 생기지 않는가를 보살피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의 마 음은 삼수땅의 어머니한테로 달 려갔다.

《어머니결에 가서 첫아기를 낳을래요.그러면 두려움도 덜 할것 같아요.》

응석기어린 그의 말이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놓은듯싶었다. 광 복이 제가 직접 안해를 집에 데 려다주기로 한것이였다.

렬차의 좌석등받이에 기대여 잠을 청하려던 우효성은 누군가 말을 거는 바람에 눈을 뗬다. 《아주머니,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얼굴이며 눈매가 동실동실한 인상을 주는 렬차원처녀였다. 우효성은 수집게 웃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렬차원은 물러서지 않 았다. 어디 사는 누구들이고 목 적지는 어디이며 해산예정일은 언제인가 하는것들을 깐깐히 캐 여물어 대답을 받고서야 종종걸

음으로 되돌아갔다. (참 살뜰한 렬차원도 있지.) 하고 효성은 생각하였다.아래 배부위가 좀 무직한것 같았으나 기분은 마냥 상쾌하였다.

이때 철도제복을 입은 여러명 이 그한테 다가왔다.

《아주머니, 저쪽으로 자리를 옮깁시다.》 나이지긋한 사람이 하는 말이

였다. 그는 려객전무 편영식이

였다. 그가 앞장에 서고 최명심, 김 현화, 리은정을 비롯한 렬차원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게 조선옷을 더 잘 만들기 위해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2014년

조별련맹전에서 우리 나라 팀

은 3월 16일에 가나팀과,

19일에 카나다팀과, 23일에

도이췰란드팀과 경기를 하게

된다. 조별련맹전에서 1,2위

를 차지한 팀들이 준준결승경기

-동대원구역종합양복점 신리조선옷점에서-

녀 자 월 드 컵 경 기 대 회 가

에 속하였다.

2014년 17살미만 너자월드 가나, 카나다팀들과 함께 2조

들이 효성을 부축하여 데리고갔 다. 풋잠에서 깨여난 리광복도 영문모르고 따라왔다.

H

얼마쯤 가니 렬차의 한쪽끝 은 점점 더 심해갔다. 잠든 려객 에 침상을 새로 꾸린 곳이 있었 다. 눈같이 정갈한 백포우에 푹 신한 침구류가 놓였다. 빨간 글자로 《소대의약품》이라고 쓴 함을 안은 또 다른 렬차원처 녀가 그를 향해 방글방글 웃고 있었다.

홀몸이 아닌 자기를 위해 특 별히 자리를 마련하였다는것을 직감하는 순간 우효성은 렬차안 에서 뜻밖에 받는 극진한 대접 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모든것을 사람 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참 다운 인민의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려객들의 생

명안전과 건강을 렬차승무원들 이 책임지고있다. 렬차에 오르 는 순간부터 려객들은 렬차원들 의 관심과 보호속에 들게 된다. 렬차원은 손님들의 건강과 몸상 태에 주의를 돌리며 려객들가운 데 전쟁로병과 영예군인, 애기 어머니나 환자가 있지 않는가를 살펴본다.

철도를 자주 리용하는 려행자 들속에도 이에 대하여 아는 사 람은 많지 않다. 때문에 우효성 이 놀란것은 십분 그럴만 한 일 이였다.

겨울밤의 찬 대기를 헤가르며 렬차는 기세좋게 달렸다.

우효성이 침상에 누워 잠에 이 흘러내렸다. 《울지 말아요. 우리가 곁에

아주었다.

신

동

들가말가 하는데 아래배가 지그

들을 깨울가싶어 그는 입술을

고집을 부리더니 큰 야단이군.》

고있는데 렬차원처녀들이 마주

《그만큼 떠나지 말자는데 땅

광복이 당황하여 허겁지겁하

《려객전무동지에게 알렸으

편영식은 철도성에 정황을

보고하는 한편 렬차원들을 발동

하여 2호객차의 녀인이 해산하

게 되는 경우 방조할 의료일군

들을 렬차안에서 시급히 찾도록

고요하던 렬차안 분위기가 삽

시에 벌컥 뒤집혔다. 구급가방

을 찾아든 의료일군들이 뛰쳐일

어나고 려객들이 깨여나 술렁거

데 위급한가봐요.》

녀인에게 쏠리였다.

없을가?》

《2호객차에 임신부가 탔는

《원 저런! 우리가 도울 일이

온 려객들의 관심은 2호객차

그 시각 아픔에 시달리는 우

효성의 마음속에는 괜히 먼길을

떠났다는 후회감이 살아올랐

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니생

각이 더욱 간절하였다. 어머니

가 여기로 훨훨 날아올수는 없

을가,어머니만 함께 있다면 아

무리 큰 아픔도 참아낼수 있으

리라는 생각으로 눈물이 하염없

에서 진통을 겪고있는 이름모를

꼭 깨물었다.

오며 말하였다.

하였다.

니 너무 걱정마세요.》

시 아파나기 시작하였다.통증

있지 않나요.》 최명심이 이러면서 눈물에 젖 은 그의 두볼을 손수건으로 닦

步

HI

효성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해산방조를 하기 위해 나선 리 옥금녀성과 의료일군들이 그를 성벽처럼 둘러싸고있었다. 그 어떤 고통과 위험이라도 다 막 아줄것처럼.

효성은 불시에 마음이 진정되 고 용기가 나는것을 느꼈다. 얼마후 객차안에는 힘찬 고고성이 울려퍼지였다.

2호객차의 녀인이 귀여운 옥 동녀를 낳았다는 소식은 차칸들 에 속속 퍼져갔다.이 차칸,저 차칸에서 손님들이 산모와 갓난 아기를 축하하려고 찾아왔다. 미역이며 돼지발쪽, 음식감들이 그의 침상곁에 가득 쌓이였다.

《제발 이러지들 마세요.》 효성이 사정하듯 말하였으나 사람들의 물결은 그치지 않았다. 몸매가 호리호리한 한 청년이 오래 묵은 산꿀이라면서 단지채 로 내여놓았을 때 효성은 그의

옷자락을 움켜잡았다. 《안돼요. 도로 가져가세요.》 그러자 청년은 되려 《우리 나라에서는 산모를 위해 비행기 까지 띄우는데 요쯤한걸 가지구 뭘 그럽니까. 동생이 가져온셈치 고 받아두십시오. 》라고 하는것 이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효성과 광복은 이 말을 몇백 번도 더 하였다. 고마운 사람들

의 이름이라도 알고싶어 리광복 들, 우효성의 심장에 남은 그 아 수첩을 꺼내들었으나 자기 름답고 고결한 모습들이 천이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가, 만이던가. 달리는 렬차에서 만난 한 이름

석자를 알려달라는 청만은 사양

어떤 손님들은 리광복이 내민

수첩에 자기들이 고심하여 지었

다는 아기의 이름을 써넣었다.

많은 려객들의 축복속에 태여났

다고 하여 《축복》, 평양에서

혜산으로 가는 렬차에서 고고성

을 터쳤다고 하여 《평혜》,설

명절직후에 맞은 경사라고 하여

우리 사회에 넘치는 사랑은

자기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며

가슴을 적시고있던 우효성은 렬

차원들이 정성껏 차려준 흰쌀밥

과 미역국앞에서 눈물을 쏟고야

신안주청년역에서 혜산청년

역까지는 많은 도중역들을 지나

게 된다. 구장청년역, 묘향산

역, 포평청년역을 비롯하여 렬

차가 서는 역마다에서 2호객차

산모를 위한 의약품과 식료품들

이 올랐다. 도중역에서 내리는

려객들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

을 바라며 떠나갔고 새로 탄 손

님들도 그들에게 들리는것을 잊

달리는 렬차안에서 만난 사람

그에 대한 뜨거운 생각으로

하였던것이다.

《설경》 …

열렬한 사랑이다.

말았다.

지 않았다.

어느덧 렬차는 마지막종착역 인 혜산청년역에 당도하였다. 모를 산모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저없이, 아낌없이, 깡그 친혈육처럼 가까와진 사람들 리 내여놓는 사람들이 제 이름 과 헤여진다고 생각하니 효성은

가슴이 미여져났다.

그가 사람들과 뜨거운 작별인 사를 하고있을 때 인민보안원들 이 달려왔다.

《아주머니,산원으로 갑 시다. 》

우효성은 어안이 벙벙하였다.

《예? 전 이미…》 그러자 인민보안원들과 함께 온 량강도산원 의료일군이 말하

《우리 산원에 가서 산후대 책을 세운 후 본가집으로 가 세요. 》

뜨거운 지성속에 또 이틀이 흘러갔다. 효성이 입원한 도산 원의 입원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왔던지 한호실 의 산모들은 수수한 이 녀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여 머리를 기 웃거렸다.

그가 퇴원하는 날이였다. 산 원앞마당에는 길이 비좁도록 사 람들이 모여왔다. 향기로운 꽃 다발이며 지성껏 꾸민 애기포단 과 애기옷, 장난감들을 안고온 철도종업원들과 한렬차에 탔던 려행자들의 뜨거운 축복속에서 우효성은 량강도당위원회에서 보내준 소형뻐스에 올랐다.

그를 고향마을까지 데려다주 기 위해 편영식, 최명심과 세명 의 인민보안원, 한명의 도산원

의사가 나섰다.

의 어머니였다.

그리하여 우효성의 세 식구를 포함한 삼수군 관덕리로 가는 9명 일행이 무어진것이였다. 관덕리를 얼마 앞둔 곳에서 뻐스는 멈춰섰다. 거기서부터는

오솔길이다.

오솔길 저켠에서 소발구 한대 가 미끄러져왔다. 발구의 앞채를 잡은 사람이

효성의 아버지이고 그뒤로 체소한 녀인이 보인다. 우효성

《어머니!》 우효성은 어머니품에 와락 안 기였다.

어머니가 물었다. 동행한 사

람들이 누구들인가고. 효성은 선뜻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목이 메여왔다. 한생토록 못 잊을 사람들,그 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랑과 정 을 깡그리 바쳐준 저들을 과연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들을 정깊게 바라보며, 그들너머에 있는 수많은 은인들 을 눈앞에 그려보며 효성은 말 하였다.

《제가 어머니를 찾을 때 어머니를 대신한 사람들이

예요.》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 한없 이 고마운 그들을 효성은 어머 니와 함께 오래도록 바래웠다.

문득 효성은 멀어져가는 그들 을 향해 허리굽혀 절을 하였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라면 어디 가나 따뜻한 어머니 품에 안기게 하고 어머니의 참 된 사랑을 받을수 있게 하여준 고마운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뜨

거운 감사의 인사였다. 본사기자 허명숙

신원군 염탄협동농장 제4작업반장 김남순동무의 생활에서

산에 들에 봄빛이 넘친다. 만물이 소생하는 환희의 이 계절 농촌의 작업반장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있는가.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값있는 한생은 보람찬 삶 의 순간순간으로 꽃피고 빛나 는것입니다. » 첫닭이 우는 이른새벽 누군기

밭머리에 앉아있다. 신원군 염 탄협동농장 제4작업반장 김남 순동무이다. 요즘 그는 몹시 바 쁘다. 봄씨뿌리기준비가 마감단 계에서 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한해농사를 좌우하게 될 첫 전 투가 아닌가. 하루작업계획을 세우고있는데 떠들썩한 웃음소 리가 밭머리너머에서 들려온 다. 농장원들이 포전으로 나오 고있는것이다. 활기에 넘친 구 리빛얼굴들을 바라보는 그의 마 음은 흐뭇하다. 저들과 함께라 면 못해낼 일이 무엇이랴 하는 믿음이 넘친다. 곧 분조별로 하 루작업과제가 분담된다.매 분 조에서 질좋은 부식토들을 모판 에 더 실어내고 랭상모판들에 바람막이바자를 탐탁히 둘러치 며 강냉이영양단지모판들에 물

기가 날아나지 않게 나래를 두

3월의 봄바람은 아직 차다. 하지만 작업장의 분위기는 시간 이 흐름에 따라 더욱 뜨겁게 달 아오르고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농장에서 일하는 긍 지와 자랑을 안고 날마다 로동 의 하루하루를 위훈과 혁신으로

이어가는 농장원들인것이다. 밝은 달이 두둥실 뗘오른 저 녁 하루일을 마친 작업반원들이 포전머리에 빙 둘러앉는다. 그들을 바라보며 작업반장 김

남순동무는 말한다. 《오늘 작업반실적이 102%예요.이런 기세로 나 가면 씨뿌리기에서도 우리 작 업반이 1등은 문제없을것

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작업반원들 과학농사를 해야 더 많은 알곡 의 모습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 본 김남순동무는 또다시 일감을 잡는다.

작업반포전을 돌아보며 미흡 한 점이 없는가도 알아보고 창 고로 와서 그쯘히 놓여있는 소 농기구들도 일일이 살펴보면서 부족한것이 없는가를 알아본다. 랭습지가 많은 작업반포전에서 올해에도 풍작을 이룩하자면 잡 도리도 중요하지만 농사준비도 있으랴. 실속있어야 하는것이다.

자정이 넘어서야 머리수건을 풀며 집에 들어서는 안해에게 군산림경영소에서 일하는 남편 은 말한다.

《이제야 끝났소? 작업반장 의 남편인 덕에 잠도 다 잊어버 리겠군.》 밥상을 챙겨놓고 한시간이나

기다렸다는 남편의 말에 김남순 동무는 무등 미안해하며 말

《미안해요. 흥복이아버지, 래일부턴 먼저 쉬세요.》 《무슨 소릴, 농사철인데 당신이 오죽 바쁘겠소? 이제부

런 내가 앞치마를 두르지.》 수십년세월을 이런 뜨거운 정 으로 뗘밀어주고 이끌어준 남편 이다. 밤은 깊어가지만 김남순 동무는 또다시 책을 펼쳐든다.

소출을 낼수 있기때문이다. … 이렇게 봄날의 하루하루를 보 내고 새봄을 맞기를 수십년, 농 촌에 자원진출한 때로부터 30 여년이 된다. 그 나날 김남순동 무는 작업반장으로, 군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였다. 해마다 새봄은 이렇듯 그에게 생활의 랑만과 기 쁨을 안겨주었다. 그러니 어찌

그가 이 땅을 사랑하지 않을수

본사기자 오은 별 하신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이 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 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 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많은 가정들에 좋은 단 상 풍경이 펼쳐지고있다. 《여보,내가 도울 일은

없소?》 《당신이 맡았다던 설계는 어떻게 되였소? 완성할 날이 아직 멀었는가.》…

남편들속에서 안해를 도우 려는 열의, 안해들이 맡고있 는 혁명과업수행에 대한 관 심이 부쩍 높아지고있다.

3.8국제부녀절을 전후 한 때여서인가. 그때문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얼마전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한 부대의 비행훈 련을 지도하시면서 부부비행 사들을 따사로운 사랑의 한품 에 안아주신 감격적인 사실이 온 나라 가정의 남편과 안해들의 마

음속에 깊이 새겨지고있다. 부부 비행사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 여 구석구석 다 료해하시고 가사 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조 국수호의 항로를 함께 날고있는 이들의 마음은 정말 소중하다고 두의 심장을 쾅쾅 울리고있다. 국사와 가사!

그중에 나는 어느것을 더 중시하였는가?

수많은 남편과 안해들이 이 물음앞에 자신을 세워본다. 국사속에 가사가 있다.

돌이켜보면 가사우에 국사를 놓은 사람들속에서 참된 애 국자도 영웅도 로력혁신자도 나왔다.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태여난 혁명적군인 가정인 엄복순군인가정이 그 렇고 이 나라의 수많은 로동

자부부, 농민부부, 과학자부 부들이 다 그러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 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

을 찍은 부부비행사들,

누구나 그들을 선망속에 바라보며 부러워한다. 경애하는 원수님 시대에

대여난 또 하나의 훌륭한 애 국가정,시대의 본보기가정 의 모범은 온 나라 가정에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는 후더운 애국의 열풍

을 몰아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린 부부비행사들의 행복넘친 모습 을 보고 또 보며 온 나라의 부 부들은 심장속 깊은 곳에 소중

한 소원과 맹세를 얹는다. 경애하는 원수님앞에 우리 부부가 다 애국자로 뗫뗫이 나 서리라.

본사기자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 벽 으 로 계 급 의 식 을 루 철 한

화목한 사회주의 대가정!

하게 된다.

정이 오늘 이것은 집단 주의가 사회의 기초로 되여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또 하나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사람들모두가 한식솔, 친형제 를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끄는 우 리 사회에는 인간사랑, 인간존 중의 미담들이 참으로 많다.

국 제 축 구 련 맹

꼬스따 리까에서 국제축구런맹

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

여 세계 각지에서 선발된 16

개 나라 팀들이 참가하여 조별

련맹전과 준준결승, 준결승, 결

승의 방법으로 최종승부를 결정

컵경기대회가 진행되게 된다.

얼마전 조국보위의 길에서 피 흘린 영예군인의 미더운 혁명동 지, 한생의 길동무가 되여준 문 덕군 인흥협동농장 3대혁명소 조원 최정심동무에 대한 이야기 는 사랑과 정으로 아름다운 우 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찬가로 된다. 그러나 인간증오와 사회악이 란무하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실 은 과연 어떠한가.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는 실업자와 파산자, 알콜중 독자와 마약중독자가 늘어나 고 살인, 강도와 같은 사회악 이 늘어나 사람들이 날로 더 욱 불안과 절망에 빠져들어가 고있습니다. 》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미국의 어느 한 주재판소에서 1 0대의 흑인을 총으로 쏘아 살 해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있 었다. 이 재판에서 사람들은 살 인죄로 기소된 범죄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놀랍게도 범죄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는

일이 벌어졌다. 만일 범죄자가 흑인이였다면 판 기류범죄사건으로 여러명의 주

결은 달라졌을것이라고 야유하 면서 이 사건이 미국사회에 만 연된 인종차별이 가져온 후과라 고 개탄하고있다.

흑인이라고 하여 무고한 죽음 을 당하고도 모욕을 받고 백인 이라고 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히 살아남는것이 바로 미국 의 현실이다. 이뿐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증오가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각 종 사회악이 성행하는 미국에서 총기류범죄는 하나의 류행병처 럼 나돌고있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미국의 여 러 주들에서 총기류범죄사건들 이 연방 터져나와 사람들의 경 악을 자아냈다.지난 1월초 텍 사스주의 휴스톤시에서는 한 사 나이가 살림집에 뛰여들어 무작 정 총을 란사하여 1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새해벽두부터 일어난 총기류 범죄행위는 미국사회에 공포와 불안을 더해주었다.

휴스톤시에서 울린 총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플로 리다주의 한 영화판에서 정체불 명의 사나이가 영화를 관람하던 사람들을 향해 총을 휘둘러 여러 사람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 났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날에 는 뉴멕시코주의 한 중등학교에 서 일어난 총기류범죄사건으로 2명이 부상을 입고 학교가 온

통 수라장으로 되였다. 련이어 인디아나주에서도 극 악한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 이에 대해 미국의 언론들은 다. 어느 한 시장에서 일어난 총

진 행 된 디 에 올라가게 된다. 우리 나라 팀은 도이췰란드,

1 7 살 미 만

우리 나라 팀은 2013년 아 시아 16살미만 녀자축구선수 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 하고 국제축구련맹 2014년 1 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 회 본선경기참가자격을 획득하 였다.

말라버린

얼마전 뉴욕시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시에서만도 지난해 총기류

범죄가 1 090여건이나 발생

오죽했으면 미국의 ABC방송

과 신문 《워싱톤 포스트》를

비롯한 언론, 출판물들까지도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총기류범

죄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개별

적인물의 소행이라기보다 사회

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난문제들

을 반영하고있는것이라고 개탄

이와 같이 미국사회는 인간증

하였겠는가.

민이 목숨을 잃었다.

본사기자 김 철 우 찍음

본사기자 부 등히 덮어놓는 일이다.

인간생지 고 한다.

된다.

들어찬 범죄의 소굴,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지금 일본에서는 계속되는 경제침체 와 그에 따른 취직난으로 수많 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방 황하고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난 과 가정파탄 등으로 스스로 목

숨을 끊는 현상이 례사로운 일 로 되고있다. 년령별로 볼 때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로인들속에서 자살

자수가 많다고 한다. 질병에 걸려도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 고칠수가 없고 자식들로 부터는 천대와 멸시를 받는것으

가정과 사회의 관 심과 보살핌속에 있어야 할 로

인들이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인간증오사상의 피해자가 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은 일본과 같은 악덕의 란무장에서 절대로 피할수 없는 응당한 현실이다. 사랑과 정이 말라버린 인간생

지옥-자본주의사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사회 주의제도만이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꽃피울수 있으며 근로대 중은 약육강식과 패륜패덕이 판 을 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그 어떤 행복도 희망도 가질수 없 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게

본사기자 리 남 호



미제가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볼아온다면 단매에 쓸어버릴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 중 앙 계 급 교 양 관 에 서 -

이 땅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 은지도 6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해주시 학현 동에서 사는 정주원로인의 가슴 속에는 지난날의 가슴아픈 추억 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생생히 남아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정신착란증에 걸린 미친놈들 이며 두발가진 승냥이들입 LICH. »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

시적후퇴시기인 1950년 가을 정주원로인의 고향인 송화땅에 기여든 미제승냥이놈들과 계급적 원쑤들은 모범일군이였던 그의 아버지 정남호를 체포하였다. 놈들은 《악질빨갱이를 잡았

다.》고 하면서 그에게 모진 고 문을 들이대기 시작하였다.

그때 어린 소년이였던 정주원 은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귀밑은 찢어져 피가 흘렀고 두다리와 두팔은 부러져 제각기 건들거리

장원들이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

니고 사회주의진지를 튼튼히 다

져나가도록 계급교양사업을 방

농장에서는 미제와 일제의 침

략적이며 야수적인 본성과 계급

적원쑤들의 교활성과 악랄성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게 계급교

양자료들과 계급교양직관판들

법론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강동군 고비협동

농장에서 모든 농

고있었으며 부서진 턱으로 하여 자에 똑똑히 새겨졌다. 아버지의 얼굴은 도무지 형체를 알아볼수가 없었던것이다.

어린 소년의 꽉 틀어쥔 두주 먹은 제땅에서 농사짓는 기쁨을 안고 노상 싱글벙글 하던 사랑 하는 아버지를 저 지경으로 만 든 원쑤놈들에 대한 불타는 증 오로 하여 부들부들 떨렸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악착스

럽게 고문을 들이대던 미제침략 군놈들과 계급적원쑤들은 비밀 을 지키기 위해 혀까지 끊은 정 남호를 비롯한 여러명의 애국자 들을 산판으로 끌어내였다. 놈들은 그들을 한명씩 벼랑에

서 떨구는 방법으로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원쑤놈들은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어린 정주원을 비롯하여 죄없는 수백명의 마을사람들을 자그마한 창고에 몰아넣은 뒤 그들의 머리우에 휘발유를 뿌리

고 불을 질렀다. 살점을 지지는 아픔으로 하여 터치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으 며 너털웃음을 짓는 원쑤놈들의 몰골은 어린 정주원소년의 눈동

피를 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승냥이의 본성그대로 놈들은 그 들의 시체까지 말끔히 없애야 한 다고 떠벌이면서 비행기로 폭탄 을 떨구어 창고를 폭파시키는 천 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그 원한의 피바다, 불바다속 에서 구사일생으로 정주원소년 이 살아남았다.

세월이 흘러 그때 철부지였던 그의 나이가 어느덧 70살을 넘 어섰다. 그러나 정주원로인의 마 음속에는 온 가족만이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 한 미제살인귀들과 계급적원쑤놈 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천백배 의 복수가 만장약되여 남아있다. 《기어이 피값을 받아내

리라!》 이것은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피맺힌 원쑤들에 대한 한 로인의 절규만이 아닌 미제침략 자들과 그 주구들을 지구상에서 깨끗이 소멸하고 사무친 원한을 가슴후련히 풀고야말 우리 인민

모두의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본사기자 리건일

복 수 의 可 가 을 만들어놓고 그를 통한 계급 교양사업을 잘하고있다.

농장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 에 내려갈 때마다 농장원들에게 지난 시기 우리 인민에게 저지 른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만행에 대해 이야기해주어 그들 의 가슴마다에 복수의 피가 끓 어번지게 하고있다.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뎌 욱 로골화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농장에서는 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 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는

>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원쑤에 대한 멸적의 기상을 안 고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데 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승리적전진에 경악한

처 <u>O</u> 0

조선속담에 제 버릇 개 못 준다 는 말이 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잘되는데 대해 몹시 배아파하고 헐뜯기 좋아하는 미국에 아주 적 중한 말이다.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에 조선 인민군 전략군은 로케트발사를 단 했하여 우리의 조국방위를 위한 초정밀무기들의 높은 명중률을 시 위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일거일동을 쌍심 지를 켜고 주시해보던 미국은 갑 자기 눈섭우에 벼락이나 떨어진것 처럼 화들짝 놀라 유엔안전보장리 사회 《결의위반》이니, 《국제사회 의 적절한 대응 촉구》니 하며 법 석 소동을 일으켰다. 우리의 로케 트발사를 대범죄로 문제시하기 위 한 고발놀음이였다.

우리는 미친증발작이라고나 할 수 있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행 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꼈고 다른편으로는 자긍심을 가 졌다.

지금 우리 인민은 각종 핵전쟁 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호 전적인 하수인들을 끼고 《키 리졸 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 리고있는 미국이 우리의 전략군이 단거리로케트 몇발을 발사하자 기 절초풍해하는것을 보면서 우리 로 케트들의 기술적성능과 위력은

아마 상상할수 없을 정도인 모양

있다.

미국이 단거리로케트발사에도 깜짝 놀라 팔딱거리는 염통을 가 지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이 세계에서 지금껏 어떻게 《초대국》 노릇을 해왔는지 의심이 든다.

이라고 생각하며 속이 시원해하고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기 전에 미국은 핵전략수단들이 투입되지 않을것이라느니, 레년보다 연습의 규모가 줄어들것이라느니 하며 우 리의 눈치를 슬슬 살폈다. 우리의 전략군이 로케트를 발사하였을 때 에도 초기에는 그 무슨 《위반》으 로 볼수 없다고 마이크앞에서 공 언하였다. 그러다가 돌연히 태도 를 바꾸어 로케트발사를 문제시하 기 시작하였으며 그 흐름을 타고 미국무장관이 나서서 《사악한 곳》 이라느니, 《악의 나라》라느니 하 고 우리를 모함하는 악담을 마구

사태는 이렇다. 고요한 호수에 폭탄이 터진것처럼 일이 번지고 있다.

물론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도 전하든 두려워하지 않으며 미국으 로부터 찬양받기를 바라지 않는 다. 미국이 발악적으로 헐뜯을수 록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정당 하다는 확신을 주며 그만큼 위력 이 강화되고 발전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반증해주는것으로 된다. 하지만 미국이 초보적인 레의도 지키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우리 공화국을 모함하며 도발을 걸고 불집을 일으키는 도수가 한계를 넘어서고있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 해둘수 없다.

미국이 깡패들만이 할수 있는 방

식으로 감정을 심히 자극하는 막말 까지 마구 쏟아내며 급작스레 우리 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는 것은 지금까지 보기 드문 일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과 사회주의강성국 가건설의 비약적발전앞에서 공포

비명이다. 미국의 장끼는 깡패적, 불량배 적기질이며 호전성이다. 그에 비 하면 사고는 체통과 악랄성에 어 울리지 않게 너무 유치하다.

에 질린자들이 내지르는 단말마적

상이 당장 물거품이 될것 같아 몹

있겠는가.

당과 수령,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지키고 반드시 최후

승리를 이룩하고야말 강의한

신념과 억척의 의지를 가진 우

리 군대와 인민이다. 도발자들

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군대와

약육강식을 생존법칙으로

삼고있는 미제와는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

길아래 다지고다져온 불패의

군력을 총폭발시켜 조선민족

통할수

요즘 미국의 어중이뗘중이

들이 우리를 걸고들며 내뱉는

망발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약

하기 짝이 없다. 전 미국대통

인민의 기질이고 본때이다.

시 바재이고있다. 더우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든 다종다형 의 첨단로케트들의 성능이 남김없 이 검증되자 질겁하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미호전세력은 《키 리졸브》, 《독 수리》합동군사연습 등을 해마다 벌려놓고 동서남북으로 미싸일방 위체계를 그물처럼 쳐놓아도 그것 이 다 무용지물로 될수 있다는것 을 그 어떤 정보로가 아니라 현실 로 확인하고있다.

미국이 아무리 경제제재를 가해 도 우리의 경제는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어 발전하고있으며 세계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 를 찾아오고있다. 날이 갈수록 소 문이 퍼지는 조선특유의 문명을 누리고싶어하는 세계민심의 흐름 을 미국이 과연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방문자들은 미국의 악선전과는 달리 약동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사회주의의 생활력을 직접 보고 듣 고 느끼고있으며 돌아가서는 자기 들이 받은 벅찬 감흥을 터놓고있 미국은 우리에 대한 무장해제몽 다. 그것은 지금껏 미국이 품을 들 여 만들어온 허상을 순간에 걷어내

는 막강한 선전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미국전략가들이 추구하는 대조선정책이라는 나무가 뿌리내린

깡패국가의

토양이 사막화되고있음을 의미한 다. 조선에서 어쩔수 없이 손을 뗸 다는것은 그곳을 교두보, 출발진지 로 하여 수립된 아시아태평양정책, 세계지배전략이 휴지장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아닌밤중에 홍두깨내밀듯 개시한 반공화국공세 에는 이런 전략적인 고민거리가 작

미국의 엉뚱한 도발은 우리의 평화애호립장에 질겁한 고약한 훼 방군의 모략소동이다.

욧한것이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우리의 인내 성있는 노력에 의해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화해 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평화와 안 정이 깃들게 되면 아시아태평양지 배전략을 실현하자는 미국의 침략 적인 군사정책,대외정책이 한낮 의 잠꼬대로 되고만다. 미국은 조 선반도문제에서 주도권을 뗴우게 되고 적지 않은 무기시장도 잃을 수 있다.

깟패는 두목도 깡패요, 그 졸개

겠다.

간극을 연출하였다.

깡패와 인간추물들은 한속통으 로 서로 잘 어울리기마련이다. 그 들이 부르짖는 《인권》이란 조국과 민족을 등지고 오직 약육강식의 사회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방 종하고 야생적인 권리이다.

문명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야 생인이 공포를 가지고 대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충고하건대 미국은 해가 동쪽에 서 뜨는지 서쪽에서 뜨는지, 세상형 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지간히라 도 알고 헤덤비는것이 좋을것이다.

유엔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무쇠주먹》을 휘두르며 무지막지 하게 다른 나라들을 치고 짓밟던 그 군사적깡패기질, 이중기준과 허위로 가득찬 온갖 궤변을 다른 나라들에 진리라고 내리먹이는 도 깨비짓이 어디에서나 통할것이라 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신착란이 다.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 는 급기야 막을 내리고있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온갖 훼방질 이 꺼져가는 목숨을 부지해보겠다 고 발버둥치며 발악하는 늙다리 깡패의 맥빠진 비명으로밖에 들리 지 않는다. 미국이 아무리 못되게 놀아대도 우리의 승리적전진을 가 로막지 못할것이다.

철

화를 부르지

미국것들이 제입이라고 아 무렇게나 놀려대고있다. 이자 들이 조선인민군 전략군부대 들의 정상적인 로케트발사훈 련을 《위반》이요, 《도발》이요 하고 걸고들면서 벌둥지 쑤셔 놓은것처럼 소란하게 놀아대 고있는데 가증스럽기 그지없 다. 언젠가는 우리의 평화적 인 위성발사를 두고 불에 덴 송아지마냥 놀라 《장거리미 싸일발사》니,《위반》이니 하 고 우기더니 오늘 악습이 또 다시 재현되고있다.

속담에 세살적버릇 여든까 지 간다고 미국은 쩍하면 우 리를 걸고들고 적대시하는 못 된 버릇을 망할 때까지도 고 치지 못할것이다.

미국이 남의 나라 땅에 기여 들어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도 제 나라, 제땅에서 당당한 자주권을 행사한 주인 ◎ 을 걸고드는것은 도적이 도적 이야 한다는 격언그대로이다.

력사이며 미국이 세계평화의 교란자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 는 사실이다. 이런 침략의 광 신자들이 숱한 핵전쟁수단들 을 끌고와 우리의 코앞에서 불장난을 벌리며 제편에서 《도발》이라고 떠드는데 과연 어느 누가 거기에 귀를 기울

이며 또 그자들이 운운하는 《방어》타령을 곧이 믿겠는 가. 미국이 지금 저들이 남조 선에서 벌려놓고있는 전쟁연 습을 한사코 《방어》라고 우기 는데 만일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코앞에서 군사연습을 하면서 그것을 방어를 위한것이라고 한다면 납득할수 있겠는가.

자고 날칠것이다. 세상리치는 바로 이렇다. 그런데도 혀바닥을 함부로 놀

아마 미국은 당장 전쟁을 하

려대는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미제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만장약

소동을 주시하면서 최대하의 자제력을 유지하고있다.

이번에 우리 전략군부대들 은 자위적사명을 띤 방어형로 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 케트들을 발사하였지만 만일 미제가 무분별하게 날뛰며 도 발의 도수를 더욱 높인다면 우리의 대응은 결코 그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미국은 세치 혀바닥으로 우 리의 자위적로케트발사를 걸 고들며 《제재》따위의 반공화 국나발을 계속 불어대다가는 상상 못할 화를 입을수 있다 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미제원쑤들의 아성 을 통채로 들부시는 심정으로 석탄증산을 위한 새로운 비약 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킴으 로써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 어나가는 보람찬 투쟁에서 보 다 큰 성과를 이룩하겠다는것 을 굳게 결의한다.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지배인 김표훈

의 백년숙적인 미국놈들을 몽 땅 태평양에 수장해버려야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 다. 미국은 저들의 상대가 누 구인가 하는것을 똑바로 알아 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천만군민은 원 쑤들이 신성한 우리의 령토를 0.001 mm라도 침범한다 면, 우리의 령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기게 한다면 다 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선군 의 위력으로 오만무례한 침략 자들에게 무자비한 섬멸적타

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우리는 후대교육사업을 책 임진 성스러운 임무를 깊이

격을 안기고 민족최대의 숙원

자각하고 교수교양사업을 더 욱 짜고들어 학생들모두를 강 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뗘밀어 나가는 인재들로만이 아니라 만일 적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자기 수령, 자기 조국을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총폭 탄용사로 튼튼히 준비시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학장 조용봉

지금 조국땅 방방곡곡에는 온 나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 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한 환희가 뜨겁게 차넘치고있다. 람홍색공화국기폭에 언제 나 승리만을 아로새기며 세

도 깡패라고 얼마전에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라는자는 국무장관인 케리를 본따

우리를 시비질하며 제가 마치 남

조선당국의 고문이라도 되는것처

럼 우리가 핵과 미싸일을 포기하

지 않으면 남조선이 하는 대북인

도적지원의 진전을 기대할수 없다

고 잘라말하였다. 그의 말은 남조

선이 북남관계를 더이상 개선하면

이것만 놓고서도 미국이 우리

나라 북과 남의 대결을 고취하고

그속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세

상 너절한 불망종이며 깡패국가이

하긴 신성한 교정에서 공부는 하

지 않고 못된 망종질만 일삼던 락

제생이나 보통생이 대통령벙거지

를 뒤집어쓰는 미국이고보면 그 무

슨 장관이요, 차관보요 하는것들이

못된 버러지 장판바닥에서 모로 기

듯 해도 이상할것은 없다. 미국대

통령을 해먹은 부쉬가 지식은 없

어도 말할 대상이 있는지 얼마전

에 남조선에 와서 조국을 배반한

인간쓰레기들을 《영웅》이라고 춰

올려 세상을 놀래우는 해괴한 막

안된다는 일종의 압박이다.

라는것을 톡톡히 알수 있다.

기적인 기적과 대변혁을 창 🕒 조하여온 우리 공화국은 오 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앙양기를 열어나가고 있다.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철 저히 고수하고 영원히 빛내 여가려는것은 우리 천만군 민의 백절불굴의 신념과 의

지이다. 그런데 미제와 그 추종세 력들의 골수에는 우리를 해 치고 북침야망을 실현할 흉 계만이 꽉 차있다. 원쑤들은 우리가 평화로운 환경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 그치고 행복을 누리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국 무장관이니, 전 미국대통령 이니 하는 어중이뗘중이들 이 저저마다 나서서 우리 곳 화국을 감히 《악》이라고 헐 튿고 《인권》이니 뭐니 하고 허튼 잡소리들을 줴치고있 는것이다. 우리가 세계가 부러 워하게 잘살자고 해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이 가증스러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평 화를 누구보다 갈망하기에 우 리는 그것을 해치는 악한들을 깨끗이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발편잠을 잘수 없다.

만일 미제와 그 추종세력 들이 하루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선군으로 존엄 높고 무적의 위용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에 선불질을 해 댄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대맛이 얼마나 무서운것 인가를 톡톡히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공장의 전체 로동 계급은 미제원쑤들의 악랄 한 반공화국도발책동에 대 처하여 호전광들을 단호히 짓벌할 만단의 동원태세를

이 강추고있다. 우리는 원쑤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이 우심할수록 전후 빈터우에서 천리마대고조로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고 자

게 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비 약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질 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사회주 의강성국가의 령마루에 승리 의 기발을 반드시 휘날릴것 이다.

국제사회는 력사상 처음 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 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린 영웅조선의 전승 의 력사와 치렬한 반미대 결전에서 런전런승을 이룩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 랑스러운 전통이 어떻게 빛나 게 이어지는가를 톡톡히 보게

> 평양기초식품공장 직장장 립 진 명

albodbodbodbodbodb

한 우리는 침략자들의 불장난 미국의 력사가 침략전쟁의 총폭탄용사이다

우리를 위협해보려고 북침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 면서 기고만장해하던 미제가 우리 전략군의 자위적인 로케 트발사훈련에 덴겁하여 《도 발》이니.《제재》니 뭐니 하고 고아대더니 구축함과 순양함 4척을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고 한다.

allo-allo-allo-

남조선당국의

영국지부가 남조선당국이 통합진

보당 《국회》의원에게 중형을 선고

한것과 관련하여 최근 이를 규탄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통합진

보당 《국회》의원에게 가혹한 징

역형을 들씌운데 대해 폭로하고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영

상연구소조, 조선과의 친선협회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륙수단들을 계속 끌고와 불장 난을 하는 도발자들이 도리여 제편에서 우리를 걸고들며 계 왜 이런 놀음을 벌리겠는가.

진보인사란압책동

핵무기들을 비롯한 대량살 제에 대한 원한과 분노는 우 리 인민의 뼈에 사무쳐있다. 미제야말로 한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조선인민의 피맺힌 것 같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 위험한 반공화국흉계가 또다시 신성한 우리 조국땅 도 모르며 아무 말이나 망탕 있다.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 내뱉는 망녕든 늙다리까지 내

령이라는 정치깡패 부쉬는 남 조선에 날아들어 조국을 반역 한 인간쓰레기들을 《영웅》으 로 추어올렸다고 하는데 확실 히 정신나간 얼간망둥이가 분 명하다. 미국식가치관이라는것이

바로 그런것이다.결국 자기 조국과 부모형제를 배반한 인 간추물들도 《영웅》으로 개여 올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온 통 시라소니들만 사는 나라인 도 판별 못하고 제입에서 구 그 흉악한 원쑤들이 지금 렝이 나가는지 뱀이 나가는지 취해야 한다. 철천지원쑤 미 오고있으니 이 어이 참을수 세워 반공화국대결에 매달려

야 하는 미국의 처지도 참으 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날강도

지금 미국의 관리라는자들 이 저마다 우리의 정상적인 로 케트발사훈련을 《위반》이니, 《도발》이니 하고 걸고들며 또 다시 유엔《제재》따위를 떠들고 《미싸일, 핵위협》에 대해 악청 을 돋구고있는데 그야말로 생 억지의 극치이다.

수십년동안 미국의 군사적 도발과 핵위협을 받으며 살아 온 직접적피해자는 다름아닌 우리 인민이다. 미국이 그 누 구의 《도발》과 《위협》을 운운 하지만 사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대고 할 소리 이다.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강토에 는 항시적으로 전쟁의 검은구 름이 드리워져있었고 그런 속 에서 우리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갖추었다.

자기는 핵무기든 무엇이든 다 가질수 있어도 남은 가져 서는 안된다는 이 론리야말로 얼마나 날강도적인가. 다른 나라와 민족을 해치는데 이골 이 난 침략자들은 항상 이렇 게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놈 들이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밀에 우 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들 어진 로케트를 비롯한 첨단무 기들로 장비된 백두산혁명강 군이 있기에 침략자들이 제아 무리 날뛰여도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미제야 덤벼들테면 덤벼들 라. 원쑤들과의 최후결전에서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대동강구역 릉라소학교 운 원쑤들을 모조리 짓뭉개버 교장 안옥보 려야한다.

화 0

우리 공화국의 평화제안에 프 랑스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돌릴 것을 요구하여 프랑스국회 하원 조선연구그루빠 성원인 국회의 원 쟝 쟈끄 깐델리에가 최근 외 무상 로랑 파비유스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에서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올해신년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등을 통하 여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 여 상기시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관련 하여 프랑스는 조선의 평화적 발기에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프랑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조선의

될것이다.

공화국의 립장이 천명된데 대하 제안들을 지지하여야 한다고 하 면서 그는 정부가 조선반도의 평 화와 군축을 위하여, 특히 조선반 도긴장을 격화시키는 미국남조선 한돗군사연습을 중지시키기 위하 여 적극 노력할것을 요구하였다.

미제가 북침합동군사연습에 함선집단 투입, 남조선의 3개 항에 에 참가하여 대잠수함훈련 및 한편 미싸일순양함 《레이크 에

리》호는 전라남도 목포항에, 이

지스구축함 《하워드》호는 남조선

미해군함선들은 《토마호크》

강원도 동해항에 닻을 내렸다.

미싸일, 《SM-3》, 《SM-2》대공

미싸일, 대잠수함로케트 등 타

이 함선집단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을 노린 대규모야외기

격수단들을 탑재하고있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주체사 의가 말살된 파쑈독재사회라는 의 혈세로 짜낸 막대한 유지비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라 좌익정당들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나라의 통일을 지

지하는 모든 진보세력들의 활동

남조선주둔 미군은 주인행세

이 비법화되여있다.

이것은 남조선이야말로 민주주 를 하면서 해마다 남조선인민들 석방할것을 요구한다.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에 따

남조선 《현합뉴스》에 의하면 미제가 《독수리》북침합동군사연 습에 미해군함선들을 투입하

미제침략군 함선집단이 8일 조선동, 서, 남해의 3개 항에 동 시에 쓸어들었다.

이지스유도미싸일구축함《커 티스 윌버》호와 이지스구축함 《라쎈》호가 경기도의 평택항에 기여들었다.

민간인유해발굴을 위한 조치를 요구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 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 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 족회가 4일 전쟁시기 집단학살 된 민간인들의 유해발굴과 관련

살고싶다

정취하고 아저네

동훈련인 《독수리》합동군사연습

한 조치를 취할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2009년 당 시 《정부》와 《국회》에 전쟁시기

학살된 민간인들의 유해를 발굴

に脚門で

대생은

해상공방전 등 해상종합훈련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미제침략군 해군의 타격집단 이 여러 항구로 동시에 기여든

를 탕진하고있다.

천지로 변하였다.

오늘 남조선은 인권의 동토

대. 파쑈가 란무하고 진보적인

사상과 활동이 탄압당하는 암흑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통합진

보당 《국회》의원에 대한 극악한

판결을 취소하고 그를 무조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3일 핵잠수함의 부산입 항에 이어 해상타격무력이 전례 없는 규모로 기여든 사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보이고있다.

하고 안장할데 대한 문제를 제 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 치도 취해지지 않고있다고 비난 하였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민 간인들의 유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것은 제2의 살인이자 범죄 라고 단죄하였다.

> 남 조 선 에 서 조류독감 확대

7일 남조선 《CBS》방송에 의 하면 남조선의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의 닭농장에서 조류독감 이 발생하였다.

이번 조류독감발생은 경기도 에서만도 6번째라고 한다. 6일 페사한 수백마리의 닭이 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된것으 로 판명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 이에 대해 밝혔다.

자기 나라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을 립장 천명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 하였다.

1일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 기 나라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 지 않을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이란은 다른 나라들의 재부나 령토를 탐내지 않지만 자기 나라에 대한 공격은 절대

이란을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 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다, 이란은 지구상의 그 어 떤 나라도 위협하지 않을것이다 고 그는 강조하였다.

청년들이 경제발전에 이바지할것을 호소

남아프리카대통령 쟈코브 게 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나라의 경제발 들레이흘레키사 주마가 2일 요 _ 전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자신들 한네스부르그에서 진행된 한 집 을 준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 회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경제 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교육사 발전을 위해 노력할것을 청년들 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것이라 고 밝혔다.

미국의 반꾸바봉쇄조치 단죄

하여 미국의 반꾸바봉쇄조치를 하였다. 신랄히 단죄하였다.

미국이 엘 쌀바도르주재 꾸 정부를 강박하고있는것과 판 혔다.

엘 쌀바도르 꾸바와의 현대성 현하여 성명은 이를 일방적이 조정위원회가 최근 성명을 발표 고 독단적인 침해행위로 락인

성명은 미국의 반꾸바경제봉 쇄책동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그 바대사관 외교관들에게 상품 와 같은 부당한 조치를 절대로 을 팔아주지 말도록 이 나라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밝

31-국방 卦를 α

대 륙 간 탄 도 미 싸일 발사 로씨야가 최근 아스뜨라한 주에 있는 까뿌스찐 야르사격 장에서 《P C-12M》(토뽈)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

였다. 미싸일의 훈련용탄두는 까자 흐스딴의 싸리-샤간사격장에

있는 가상목표를 정확히 소멸하 였다고 한다. 4일 로씨야국방성 공보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군사연습 진행 이란동원군이 2월 27일과 28일 나라의 6개 주에서 대규 모적인 군사연습을 벌렸다. 이번 연습의 목적은 동원군이

억제력과 전투동원태세를 강화 하고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있었다고 한다.

0

동원군의 사명에 맞는 공격과 방어 등 각이한 전투상황에 따 르는 새로운 전술방안들이 도입 된 연습은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 호 담 힌 현

살림집가격 인상 미국에서 살림집가격이 계속 올라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에 시카고시에 서만도 살림집평균가격이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17.8%나 인상되였다고 한다.

또한 미국에서 살림집가격이 지난 10분기째 계속 뛰여오르 고있다.

지난해 4. 4분기에 그 가격이 3. 4분기에 비해 1. 2% 인상되 였다고 한다. 최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

오스트랄리아에서 지난해 4. 4분기에 경상수지적자가 101억 4 000만\$A(오스트랄 리아딸라)에 달하였다.

경 상 수 지 적 자

4일 이 나라 통계국이 조사자 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 혔다. 심각한 실업문제

미국에서 경제침체로 실업문 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6일 미로동성은 1일까지의

한편 에스빠냐에서 2월에 녀

지난 한주일동안에 나라에서 새 은 총기류범죄로 2명이 살해되 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32만 고 1명이 부상당하였다. 3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여명에 달하였다. 4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 해 밝혔다. 범 죄 성 행

성실업자수가 247만 7 800여

명에 달하였다. 4일 이 나라 정

그리고 에스빠냐에서 올해 2

월에 실업자수가 481만 2 480

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미국 루이지아나주의 뉴 올리 언즈시에서 4일 총기류범죄사 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커다 란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였다.

이날 시의 한 행사장에서 있

한편 일본에서 오끼나와주둔

미군의 범죄행위가 성행하고있 다. 4일 이 나라 정부는 조사자 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현에서 미군범죄사건이 공식 등록된것 만도 32건에 달하였다고 밝 형다.

또한 일본 지바현의 한 거리 에서 3일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구 칼부 림을 하여 4명의 사상자를 내고 많은 돈과 승용차를 강탈해가지 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 였다.

이보다 앞서 2일 미에현에서 는 18살 난 범죄자가 15살 난 녀학생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에이즈 전파 필리핀에서 에이즈가 퍼져 피 해를 입고있다.

최근 이 나라 보건성은 올해 1월에 새로 등록된 에이즈비루 스감염자수가 448명에 달하였 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증대된것이라고 한다. 신형독감피해

그리스에서 최근 신형독감이 퍼져 인명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5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이 번 겨울철에 들어와 지금까지 A(H1N1)형돌림감기비루스에 의한 사망자수가 79명으로 늘 어나고 환자수는 217명에 이르 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